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경험이 초기 청소년 폭력행동의 유발과 지속에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일상생활경험(daily life experiences)이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면서, 어떠한 심리 상태로 보내는가를 말한다(Larson, 1989).

최근 청소년의 폭력 행동은 그 빈도나 정도가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져서 청소년기라는 발달적 전환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적인 문제 행동으로 고려되기보다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김준호, 1991; 김준호, 이성식, 1996; 양돈규, 임영식, 1998; 임영식, 1998; 법무연수원, 1995). 청소년 폭력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환경적 관련변인으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교의 획일화된 교육환경, 비행친구 집단, 사회체계의 구조적 불평등, 폭력적 대중매체들을 제시하고 있으며(곽금주, 문은영, 1995; 노성호, 1987; 박윤창, 이미경, 윤진, 1995; 심영희, 1981; 전귀연, 1998; Zuckerman, 1979), 심리적 관련변인으로 성격, 스트레스,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자극추구동기, 물질추구적 가치관, 우울증 등의 다양한 변인을 제시하고 있다(곽금주, 문은영, 1995; 김인경, 곽금주, 장근영, 1998; 구창모, 1993; 노성호, 1994; 윤진, 곽금주, 1991; Huesman, Eron, Lefkowitz, & Walder, 1984).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적, 심리적 요인들이 청소년의 폭력행동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이를 기초로 청소년 폭력행동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폭력행동 관련 환경적 요인들은 주로 가족, 학교, 사회의 구조적 문제, 제도

적 모순 등으로 그 접근방법이 거시적이어서 개인의 폭력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거리감이 있으며, 심리적 요인들은 성격, 가치관, 자아개념 등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비교적 안정된 요인들이라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적, 환경적 요인과의 관련성만으로는 변별이 되지 않는 청소년기 돌발적인 폭력행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최근 폭력피해와 청소년 범죄의 저 연령화 현상을 고려할 때(최외산, 김갑숙, 199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초기 청소년의 폭력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폭력 행동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있다(곽금주, 김하연, 윤진, 1991; 김재엽, 최선희, 1998; 김정옥, 구향숙, 1996; 박윤창 외, 1996; 심영희, 1981; 심용철, 1992; 이동원, 1997; 전귀연,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미시적 관점을 적용하여 다양한 일상생활맥락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경험과 폭력행동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환경적, 심리적 변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측면보다는, 상황(situation)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일시적이고 안정적이지 않은 측면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청소년기 폭력행동의 유발과 지속 여부에 직접적이고 민감하게 관련되어 있는 맥락의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렇게 밝혀진 맥락은 상황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일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해도 하루를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맥락일 경우(Scarr, 1992) 폭력행동과의 일관성 있는 관계가 발견된다면 청소년 폭력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미시적 경험맥락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내용

1. 개념정의

1) 폭력 행동

폭력행동은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주려는 시도로 정의되며(윤진, 1996), 청소년 비행의 한 하위 범주로 고려되고 있다. 폭력행동은 공격행동과 개념이나 의미상 큰 차이가 없어 혼용되기도 하고 구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두 용어의 차이를 보면 폭력행동은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미에서는 공격행동과 같지만, 그 행위의 동기가 비규범적이고 비합법적인 경우에는 폭력 혹은 폭력행동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하며, 폭력행동을 포함하여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합법적인 경우를 총칭하여 공격행동으로 본다(심응철, 1996).

폭력행동을 분류하는 입장은 다양한데 신체적인 폭행에 초점을 맞추어 상대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가할 의도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인식되어진 행위로 정의하는 입장이 있고(곽금주, 윤진, 문은영, 1993; 박윤창 외, 1995; 한경혜, 김영희, 1999),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친구들의 집단적 따돌림('왕따'), 위협, 공갈, 욕설과 같은 행위를 심리적 혹은 언어적 폭력행동으로 분류하는 입장이 있다(김재엽, 이서원, 1999; 김재엽, 최선희, 1998). 이상의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 뿐 만 아니라 고의로 물건을 부수거나 짊어 던지는 등의 행동을 통해 타인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동도 폭력행동의 한 유형으로 본다(심응철, 1989).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폭력행동의 개념과 유형을 종합해 보면 폭력행동은 '타인에게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나타나는 외현행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크게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대물폭력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행동을 타인에게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외현행동이라는 데 초점을 둬으로써,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내적인 동기나 성격 특성과 같은 심리적인 성향에 초점을 맞춘 공격성의 개념과 구분하고자 한다.

2) 일상생활맥락과 경험

맥락(context)은 물리적, 심리적,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적인 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일상생활맥락은 인간발달이 진행되는 실제 삶의 맥락을 말한다. 일상생활맥락(Daily life contexts)은 장소, 하고있는 활동,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경험(Daily life experiences)이란 이러한 다양한 일상생활맥락에서의 경험을 말하는데 객관적 경험과 주관적 경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Larson, 1989). 객관적 경험은 각 맥락에서 보내는 시간의 양으로 측정되며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 진 24시간을 다양한 일상생활맥락 중 어느 맥락에서 더 많이 혹은 적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분석한다. 일상생활맥락의 주관적 경험은 각 맥락에서 경험하는 심리상태로 측정되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맥락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해도 다시 말해 맥락의 객관적경험은 같다고 해도 그들의 심리적 상태 즉 주관적 경험은 물론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측정된 일상생활맥락의 객관적, 주관적 경험은 정신분열증, 우울증, 약물중독, 거식증 등의 정신적 부적응 행동 증세의 출현과 지속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devries & Delespaul, 1992; Merrick, 1992; Larson & Asmussen, 1992; larson, Csikszentmihalyi & Freeman, 1992; 이미리, 1996). 특히 실험실이나 연구실 등 제한된 환경에서 부적응 증세를 진단하는 것만으로는 치료가 불충분하며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맥락에서 나타나는 부적응 증세를 진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deVries, 1992). 일상생활 맥락이 하루 중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주 변화하는 일시적인 환경이라고 해도 하루를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나

타나는 맥락이므로 부적응 행동과 특정 일상생활 맥락과의 일관성 있는 관계가 발견된다면 (Scarr, 1992), 그 맥락에 대한 특성과약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같이 보이는 부적응 행동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2. 선행연구

1) 청소년 폭력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환경적 변인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청소년기 폭력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은 크게 심리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곽금주 외, 1993; 양돈규, 임영식, 1998). 심리적 변인으로 성별, 스트레스, 자극추구동기, 자아존중감, 물질추구적인 가치관, 우울증, 도덕성 발달, 학업성적 등의 다양한 변인이 제시되고 있다.

성별을 심리적 변인으로 분류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나, 개인적 특성을 기술하는 변인이고 환경적 변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리적 요인으로 보기로 한다. 청소년 비행과 공격행동의 성차를 기술한 통계치에 의하면,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절대적으로 높다. 1996년 현재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이 남자 91%, 여자 9%로 보고되었으며(양돈규, 임영식, 1998), 서울시에서 재학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연구대상 남학생 중 77%, 여학생 중 45%가 폭력비행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김재엽, 최선희, 1998). 빈도에 있어서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성차를 보이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최외선, 김갑숙(1990)은 부산 거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공격행동 유형이 다름을 보고했는데, 남학생의 공격행동은 여학생에 비해 신체적 공격행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학생의 공격행동은 남학생에 비해 언어적 공격행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행동 조사(김종미, 1997)에서도 폭력행동 유형

의 성차에 있어서 같은 경향성이 보고되었다.

스트레스 수준은 청소년기 폭력행동과 관련된 주요 심리적 요인이다. 부모 및 친구와 관련된 스트레스, 학업 관련 스트레스, 자신의 외모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등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함께 경험되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부적응 행동의 한 형태로서(노성호, 1994; 정기숙, 1993; 정현숙, 정문자, 1995), 혹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행동으로서 비행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김재엽, 최선희, 1998; 심용철, 1999; Dodge, 1990, Perry & Perry, 1989; Slaby & Guerra, 1988).

이와 같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행동으로 보는 입장과 달리 청소년 폭력 행동을 긴장 즉 일종의 스트레스를 추구하는 행동으로 해석하기도 한다(Zuckerman, 1979).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드릴과 모험 즉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기 위해 비행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 소재 인문계, 공업계 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금지된 것에 대한 도전이나 권태로움을 극복하려는 자극추구동기 부분이 청소년의 비행정도 변량의 26%를 설명하였다(박윤창, 이미경, 윤진, 1996).

청소년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도 폭력행동과 관련이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이 폭력행동을 보이거나 비행 집단에 개입하는 경향이 있다.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비행에의 개입 정도 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이들의 일탈 행동에의 개입을 예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윤진, 장근영, 박윤창, 김도환, 1997). 즉 비행에 깊이 개입하지 않은 초범자 집단의 청소년은 부정적인 자아를 갖고 있었으며, 비행에 깊이 개입한 집단의 청소년일수록 판단의 준거 집단이 반사회적 집단으로 옮겨가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점은 부정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비행에 개입하기 쉬우나, 일단 비행에 개입한 청소년은 점차 자신에게 의미있는 타인들이

반사회적 집단으로 바뀌어 짐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게 되고, 사회에서 인정하는 집단으로의 복귀가 더욱 힘들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물질추구가치관, 자아정체감, 우울증, 도덕성 발달, 학업 성적 등의 심리적 특성이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제시된 청소년 폭력행동 관련 환경적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가정, 학교, 친구집단, 대중매체와의 접촉 환경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들에서 일어나는 폭력행동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폭력행동을 학습하게 된다는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폭력행동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집에서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부모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한 경험의 빈도가 청소년의 언어적, 신체적 공격행동과 관계가 있으며(최외선, 김갑숙, 1990),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통제와 간섭 혹은 거부적인 태도가 청소년의 공격 욕구를 증가시켜 폭력 행동을 유발시킨다고 한다(박현선, 김유경, 1997). 또한 청소년 자녀의 부모폭력 관련요인에 대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취업한 어머니보다 전업주부 어머니에 대한 청소년들의 부모폭행 수준이 높다고 한다(김제엽, 이서원, 1999).

학교는 청소년들이 가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학교와 관련하여 학업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 비행친구 집단과의 접촉이 청소년 폭력행동과 관련된 주요변인이라고 보고되었다(정유미, 김득성, 1998; 최외선, 김갑숙, 1990). 학업에 대한 불안감과 친구관계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학업에 대한 어려움과 학교 생활 자체에 대한 권태로움 등으로 좌절감과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어 이런 요인이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학업 분위기와 청소년 폭력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보면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교사를 좋아하는 정도가 낮을수록(노성호, 1994), 숙제를 해오는 정도와 공부하는 시간의 양, 공부에 대한 흥미정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교사의 강압적이며 폭력

적인 훈육이 청소년기 높은 수준의 폭력행동과 관련된 변인으로 보고되었다(김은경, 1997).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업 불안이 폭력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고등학생보다는 덜하지만(노성호, 1994)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우울과 공격성의 심리적 경향을 많이 보이며, 이러한 공격성이 비행의 유발과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박현선, 김유경, 1997).

한편 친구집단을 청소년 폭력행동과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보고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비행 친구와의 접촉을 통해 비행 행동의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폭력행동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습득함과 동시에 친구간에는 서로 때릴 수도 있다는 태도를 형성하여 폭력행동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재엽, 최선희, 1998; 노성호, 1994). 특히 친구들과의 음주경험 여부가 폭력행동과 의미있는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김재엽, 최선희, 1998).

청소년 비행과 공격행동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 나라 아동의 경우 하루 평균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TV를 시청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은 일주일에 22시간 가량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원, 박금주, 1989). 이렇게 긴 시간 동안 TV를 봄으로써 청소년기의 사고, 행동,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되며, 폭력을 정당화, 합리화시키는 폭력 문화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다. 사회학습이론은 청소년들이 영상매체에서 제시된 폭력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함으로써 폭력행동을 행사한다고 보고있으며, 사회인지이론에서는 폭력적 영상매체가 개인이 갖고 있는 공격적 사고를 활성화, 점화시킴으로써, 혹은 공격적인 지식의 인지들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공격행동을 유발시키고 지속시킨다고 설명한다(윤진, 박금주, 1991; Huesmann, 1986, 1988).

2) 청소년의 폭력행동과 관련된 심리상태

위에서 살펴본바 시간이나 맥락의 변화에 대해 변함이 없는 비교적 안정적인 심리적 특성이 아닌 시간이나 맥락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

화하는 심리상태와는 초기 청소년의 폭력행동이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선행연구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청소년기 폭력행동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발달적 특성으로 신체적인 발달과 심리적 발달의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게 되고, 주위 환경의 변화와 자극에 대하여 민감하게 된다. 박윤창, 이미경, 윤진의 연구(1996)에서 금지된 것에 대한 도전이나 권태로움의 극복이 청소년의 공격적인 행동을 26%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극동기추구 이론에 의하면(Zuckerman, 1979) 청소년의 폭력 행동을 드릴과 모험추구 행동으로서 해석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의 폭력 행동은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폭력적인 청소년들은 적대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적대적 목표를 선정하며, 소수의 대안적 해결만을 일반화하고, 공격성의 부정적 결과보다는 긍정적 결과만을 예상하며 행동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공격성은 정당한 반응이며, 자존감을 증대시키고, 피해자로부터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해준다는 신념을 포함하여 공격의 사용을 지지하는 일련의 가치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Slaby & Guerra, 1988; Perry & Perry, 1989), 자신들이 하는 폭력적인 행동에 대하여 죄책감이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갈등이나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서 폭력 행동을 해석한다면(김재엽, 최선희, 1998; Dodge, 1990) 부정적인 심리상태가 수반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느끼는 정서는 본능적 정서반응의 경향을 띄며, 여기에는 미움, 원망, 죽이고 싶음, 증오, 울고 싶음 등의 제 1차적 정서반응이 수반되며, 이것이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된다고 한다(문용린, 1992). 즉 공격행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며 이러한 개인의 공격적인 성향은 폭력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반복적인 폭력 장면에서의 노출이나 폭력행동의 행사는 탈 감각화를 가져온다는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윤진, 박금주, 1991) 폭력행동을

하는 중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아닌 중립적인 정서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청소년기 폭력행동과 관련된 심리상태는 반드시 부정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은 아님을 제시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의 어떠한 맥락에서의 어떠한 심리적 경험이 폭력행동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폭력행동에 대한 심리적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3. 연구문제 제기

선행 연구를 통해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청소년기 폭력행동을 설명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청소년기 폭력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맥락적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폭력행동과 관련된 맥락 자체의 구체적 특성에 대한 지식은 제한되어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제시된 심리적, 환경적 변인들은 성격특성, 가치관, 양육태도, 사회구조 등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비교적 안정된 요인들이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폭력행동의 양상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같이 비교적 안정적인 관련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폭력행동은 시간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 자주 변화라는 심리적 맥락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설명가능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하루중 어느 장소에 있을 때, 어떤 활동을 할 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의 어떠한 심리적 경험이 폭력행동과 관계있는지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함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남·녀 중학생을 대상

으로 하여 그들의 폭력행동과 관련된 일상생활의 다양한 맥락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폭력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미시적 경험맥락요인을 제시하고자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I. 청소년 초기 폭력행동의 내용과 그 수준은 어떠한가?
- II. 청소년 초기 일상생활경험은 어떠한가?
- III. 청소년 초기 일상생활맥락에서의 객관적 경험은 폭력행동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 III-1) 청소년 초기 일상생활의 다양한 장소맥락(location context)에서 보내는 시간의 양은 폭력행동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 III-2) 청소년 초기 일상생활의 다양한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에서 보내는 시간의 양은 폭력행동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 III-3) 청소년 초기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맥락(activity context)에서 보내는 시간의 양은 폭력행동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 IV. 청소년 초기 일상생활맥락에서의 주관적 경험은 폭력행동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 IV-1) 청소년 초기 일상생활의 다양한 장소맥락(location context)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는 폭력행동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 IV-2) 청소년 초기 일상생활의 다양한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는 폭력행동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 IV-3) 청소년 초기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맥락(activity context)에서 경험하는 심리적상태는 폭력행동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선정절차

연구대상 선정을 위해 2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 단계로 강남구, 광진구에 소재한 남녀공학 2개 중학교와 강동구에 소재한 1개 여자중학교를 편의 표집하였으며 2개 중학교에서 각 2학급씩을 나머지 1개 중학교에서 4학급을 무선 선정하여 남학생 140명, 여학생 134명 총 274명이 본 연구자가 개발한 ‘폭력행동 척도’에 응답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첫째 단계에서 선정된 274명의 폭력행동척도 총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위 25%에 속하는 사례중에서 남학생 14명, 여학생 11명을 무선선정하여 폭력행동 수준 상집단으로 하였다. 폭력행동 수준 하집단은 하위 40%에 속하는 사례중에서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을 무선표집하여 구성하였다.

하집단의 경우 폭력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반응한 학생들이 많아서, 다시말해 동점이 많아서 상집단과 같이 하위 25%를 cutting point 로 하는 경우에 폭력행동점수의 분포모양이 지나치게 편포되어 추리통계 적용을 위한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하집단 폭력행동점수 분포의 정상성을 어느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상집단과 달리 하집단 선정을 위해서는 총점의 하위 40% 선까지 cutting point를 올려 잡았다.

2) 인구통계론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274명 중학생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Ⅲ->1에 제시하였다.

<표 III-1>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변인		남자 (N=140)	여자(N=134)	전체(N=274)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연령	13세	26(18.6)	20(14.9)	46(16.8)
	14세	93(66.4)	112(83.6)	205(74.8)
	15세	0(0.0)	1(0.7)	1(0.4)
	Missing	21(15.0)	1(0.7)	22(8.0)
부모생존 여부	두분생존	137(97.9)	130(97.0)	267(97.4)
	어머니생존	2(1.4)	4(3.0)	6(2.2)
	Missing	1(0.7)	0(0.0)	1(0.4)
가족 구성원수	2명	3(2.1)	1(0.7)	4(1.5)
	3-4명	90(64.3)	81(60.5)	171(62.4)
	5-6명	39(27.9)	44(32.8)	83(30.2)
	7-9명	7(5.0)	7(5.2)	14(5.1)
	Missing	1(0.7)	1(0.7)	2(0.7)
형제수	0명	31(22.1)	18(13.4)	49(17.9)
	1명	83(59.3)	75(56.0)	158(57.7)
	2명	19(13.6)	35(26.1)	54(19.7)
	3명이상	7(5.0)	6(4.4)	13(4.8)
부모결혼 상태	함께사심	128(91.4)	125(93.3)	253(92.3)
	이혼	7(5.0)	2(1.5)	9(3.3)
	별거	0(0.0)	2(1.5)	2(0.7)
	사별	2(1.4)	4(3.0)	6(2.2)
	기타	1(0.7)	0(0.0)	1(0.4)
	Missing	2(1.4)	1(0.7)	3(1.1)
아버지 연령	30대	10(7.5)	4(3.0)	14(5.2)
	40대	92(64.1)	110(82.1)	202(73.6)
	50대	7(5.2)	11(8.2)	18(6.7)
	60대	2(1.5)	1(0.7)	3(1.1)
	Missing	29(21.7)	8(6.0)	37(13.5)
어머니 연령	30대	33(23.7)	33(24.6)	66(24.2)
	40대	74(52.8)	91(68.0)	165(60.0)
	50대	2(1.4)	3(2.2)	5(1.9)
	60대	0(0.0)	0(0.0)	0(0.0)
	Missing	31(22.1)	7(5.2)	38(13.9)

변인		남자 (N=140)	여자(N=134)	전체(N=274)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아버지 교육수준	초등학교졸	4(2.9)	0(0.0)	4(1.5)
	중학교졸	14(10.0)	11(8.2)	25(9.1)
	고등학교졸	73(52.1)	60(44.8)	133(48.5)
	전문대졸	1(0.7)	4(3.0)	5(1.8)
	대학졸	28(20.0)	43(32.1)	71(25.9)
	대학원졸	2(1.4)	9(6.7)	11(4.0)
	Missing	18(12.9)	7(5.2)	25(9.1)
어머니 교육수준	초등학교졸	6(4.3)	6(4.5)	12(4.4)
	중학교졸	19(13.6)	16(11.9)	35(12.8)
	고등학교졸	82(58.6)	83(61.9)	165(60.2)
	전문대졸	0(0.0)	0(0.0)	0(0.0)
	대학졸	11(7.9)	21(15.7)	32(11.7)
	대학원졸	1(0.7)	1(0.7)	2(0.7)
	Missing	21(15.0)	7(5.2)	28(10.2)
아버지 직업수준	무직	6(4.3)	4(3.0)	10(3.6)
	노동직	4(2.9)	9(6.7)	13(4.7)
	단순기술직	12(8.6)	22(16.4)	34(10.4)
	판매서비스직	6(4.3)	4(3.0)	10(3.6)
	자영업(9인이하)	67(47.9)	34(28.4)	101(36.8)
	사무직	31(22.1)	44(32.8)	75(27.5)
	경영직(9인이하)	0(0.0)	4(3.0)	4(1.5)
	전문직	1(1.4)	4(3.0)	6(2.2)
	Missing	12(8.6)	9(6.7)	21(7.7)
어머니 직업수준	무직	64(45.7)	74(55.2)	138(50.4)
	노동직	2(1.4)	8(6.0)	10(3.6)
	단순기술직	6(4.3)	2(1.5)	8(2.9)
	판매서비스직	15(10.7)	17(12.7)	32(11.6)
	자영업(9인이하)	35(25.0)	15(11.1)	50(18.2)
	사무직	13(9.2)	10(7.5)	23(8.4)
	경영직(9인이하)	0(0.0)	2(1.5)	2(0.7)
	전문직	0(0.0)	0(0.0)	0(0.0)
	Missing	5(3.6)	6(4.5)	11(4.0)

변인		남자 (N=140)	여자(N=134)	전체(N=274)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성적 (반에서)	1-10등	32(22.9)	46(34.3)	78(28.5)
	11-20등	47(33.6)	41(30.6)	88(32.1)
	21-30등	30(21.4)	30(22.4)	60(21.9)
	31-40등	24(17.1)	16(11.9)	40(14.6)
	41등이하	6(4.3)	0(0.0)	6(2.2)
	Missing	1(0.7)	1(0.7)	2(0.7)
종교	기독교	49(35.0)	63(47.0)	112(40.9)
	불교	34(24.3)	25(18.7)	59(21.5)
	카톨릭	6(4.3)	15(11.2)	21(7.7)
	유교	2(1.4)	0(0.0)	2(0.7)
	천도교	2(1.4)	2(1.5)	4(1.5)
	기타	2(1.4)	1(0.7)	3(1.1)
	무직	45(32.1)	28(20.9)	73(26.6)

<표 III-1>에 의하면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연령, 부모 생존여부, 가족구성원수, 형제수,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연령 및 교육수준과 직업수준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구학적 특성에 있어서 집단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전체 집단의 특성을 기술하기로 한다. 연구 대상자의 대다수가 14세였고 부모가 생존해 계셨으며,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었다. 연구 대상자 중 반 이상이(62%) 가족구성원수가 3~4명이라고 하였으며, 30%는 5~6명이라고 보고하였다. 형제 수는 전체의 77%가 한 명 혹은 두 명의 형제가 있다고 하였으며 18%가 형제가 없다고 하였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40대로 전체의 74%의 아버지와 60%의 어머니가 40대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49%가 고졸, 32%가 대졸 이상, 11%가 중졸 이하였으며, 어머니의 경우 60%가 고졸, 12%가 대졸 이상, 17%가 중졸 이하였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전체의 37%가 9인 이하 업체의 자영업자이며, 28%가 사무직, 10%가 기술직

이고 나머지는 무직, 노동직, 판매서비스직, 경영직, 전문직 등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50%가 가정주부였으며, 18%가 9인 이하 업체의 자영업자, 12%가 판매서비스직, 8%가 사무직이며 나머지는 노동직, 단순 기술직, 경영직 등에 분포되어 있었다.

연구 대상자의 학교성적은 등급에 따라 고루 분포되어 있었는데 전체의 32%가 반에서 11~20등 정도, 29%가 1~10등, 22%가 21~30등, 15%가 31~40등이었다. 끝으로 연구대상자의 73%가 종교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전체의 41%가 기독교, 22%가 불교, 8%가 카톨릭이었다.

이들 중에서 선별되어 그들의 일상생활경험이 일주일간 측정된 폭력 행동 상집단과 하집단의 인구통계론적 특성은 아버지의 연령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집단 차를 보이지 않아서 두 집단이 인구통계론적 특성 면에서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버지 연령은 폭력 행동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폭력행동 상·하 집단의 인구통계론적 특성

변인		상집단(N=20)	하집단(N=20)	전체(N=45)
		빈도 혹은 평균	빈도 혹은 평균	빈도 혹은 평균
연령	13세	6명 (24%)	4명 (20%)	10명 (22%)
	14세	18명 (72%)	16명 (80%)	34명 (76%)
	15세	1명 (4%)		1명 (2%)
가족구성원수		4.56(SD=1.36)	4.45(SD=1.10)	4.51(SD=1.24)
부모생존 여부	두분생존	24명 (96%)	20명 (100%)	44명 (98%)
	Missing	1명 (4%)		1명 (2%)
부모의 결혼	함께 사심	22명 (88%)	20명 (100%)	42명 (93%)
	이혼	1명 (4%)		1명 (2%)
	Missing	2명 (8%)		2명 (4%)
아버지 연령		43.35세 (SD=2.42) t=2.33**	45.33세 (SD=2.77) p<.05	44.13세 (SD=2.71)

변인		상집단(N=20)	하집단(N=20)	전체(N=45)
		빈도 혹은 평균	빈도 혹은 평균	빈도 혹은 평균
어머니 연령		40.86세 (SD=2.12)	41.27세 (SD=3.50)	41.03세 (SD=2.72)
아버지 교육수준	초등학교졸	1명 (4%)		1명 (2%)
	중학교졸	2명 (8%)	1명 (5%)	3명 (7%)
	고등학교졸	11명 (44%)	11명 (55%)	22명 (49%)
	전문대졸	1명 (4%)		1명 (2%)
	대학졸업	7명 (28%)	5명 (25%)	12명 (27%)
	대학원졸		1명 (5%)	1명 (2%)
	Missing	3명 (12%)	2명 (10%)	5명 (11%)
어머니 교육수준	초등학교졸			
	중학교졸	3명 (12%)	3명 (15%)	6명 (13%)
	고등학교졸	17명 (68%)	11명 (55%)	28명 (62%)
	전문대졸			
	대학졸업	2명 (8%)	4명 (20%)	6명 (13%)
	대학원졸		2명 (10%)	
	Missing	3명 (12%)		5명 (11%)
아버지 직업	무직	1명 (4%)		1명 (2%)
	단순노동	1명 (4%)	1명 (5%)	2명 (4%)
	기술자	3명 (12%)	4명 (20%)	7명 (16%)
	판매, 서비스	1명 (4%)		1명 (2%)
	자영업(9인이하업체)	12명 (48%)	5명 (25%)	17명 (40%)
	사무직	5명 (20%)	9명 (45%)	14명 (31%)
	경영직(9인이상업체)	1명 (4%)		1명 (2%)
	전문직		1명 (5%)	1명 (2%)
	Missing	1명 (4%)		1명 (2%)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	13명 (52%)	11명 (55%)	24명 (53%)
	비취업	12명 (48%)	9명 (45%)	21명 (47%)
어머니 직업	무직	12명 (48%)	9명 (45%)	21명 (47%)
	단순노동	2명 (8%)	1명 (5%)	3명 (7%)

변인		상집단(N=20)	하집단(N=20)	전체(N=45)
		빈도 혹은 평균	빈도 혹은 평균	빈도 혹은 평균
어머니 직업	기술자			
	판매,서비스	4명 (16%)	1명 (5%)	5명 (11%)
어머니직 업	자영업(9인이하업체)	4명 (16%)	4명 (20%)	8명 (18%)
	사무직	2명 (8%)	3명 (15%)	5명 (11%)
	경영직(9인이상업체)	1명 (4%)		1명 (2%)
	전문직			
	Missing		2명 (10%)	2명 (4%)
종교	기독교	13명 (52%)	5명 (25%)	18명 (40%)
	불교	4명 (16%)	9명 (45%)	13명 (29%)
	카톨릭		3명 (15%)	3명 (7%)
	기타종교	2명 (8%)		2명 (4%)
	무교	6명 (24%)	3명 (15%)	9명 (20%)
학교성적 (반에서)	1~10등	3명 (12%)	7명 (35%)	10명 (22%)
	11~20등	7명 (28%)	7명 (35%)	14명 (31%)
	21~30등	8명 (32%)	5명 (25%)	13명 (29%)
	31~40등	5명 (20%)	1명 (5%)	6명 (13%)
	41등 이하	2명 (8%)		2명 (4%)

인구통계론적 특성에 있어서 집단 차이를 보기 위해서 인구론적 변인이 연속 변인으로 측정 되었을 때는 t검증, 명목변인으로 측정되었을 때는 X2검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I-2>에 제시하였다. X2검증시 사례가 없는 칸이 있는 경우는 몇개의 칸을 합쳐서 빈 칸을 없이하야 실행하였다. 차이 검증 결과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경우만 <표 III-2>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의 대다수는(76%) 14세이고 나머지는 13세이다(22%). 가족구성원 수는 평균 4.5명으로 주로 부모와 형제가 1명 있는 핵가족 형태이다. 1명을 제외하고 44명의 청소년 모두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부모님

이 이혼이나 별거를 하지 않고 함께 사신다(전체의 93%).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폭력 행동 상·하집단의 차이를 보이는 데 폭력 상집단 학생들의 아버지의 평균 연령이 하집단에 비해 2세 정도 낮은 43세였다.

부모의 교육 수준은 아버지의 반정도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며 27%가 대졸, 9%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 수준이다. 어머니는 전체의 62%가 고등학교 졸업, 13%가 대학교 졸업, 그리고 13%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전체의 40%가 9인 이하 업체 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였으며 전체의 31%가 사무직, 16%가 단순기술직에 종사하였다. 어머니는 전체의 53%가 직업을 갖고 있고 나머지 47%가 가정주부였다. 어머니의 직업 종류에 따른 빈도 분포는 전체의 18%가 9인 이하 업체 규모의 자영업, 11%가 사무직, 또한 같은 비율인 11%의 어머니들이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였다.

연구대상 청소년의 80%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체의 40%가 기독교, 30%가 불교, 7%가 카톨릭, 4%가 기타 종교였다. 학교 성적은 전체의 31%가 반에서 11-20등 수준이었고, 29%가 21-30등 수준, 22%가 1-10등 수준, 17%가 31등 이하 수준이었다. 폭력 행동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31등 이하에 속하는 학생의 빈도가 많았으나 X2검증 결과 폭력행동 상·하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인구통계론적 변인들에 대한 폭력행동 상·하 집단의 빈도나 점수 차이를 비교하는 차이 검증 결과, 아버지의 연령 변인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폭력행동 상·하 집단이 인구통계론적 특성에 있어서 동질적임을 의미한다.

2. 측정도구

측정도구로는 1) 인구학적 정보와 심리적, 환경적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 2) 폭력행동척도, 그리고 3) 경험표집방법(Experience Sampling

Method)을 실행하기 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부록1, 2참조).

1) 인구학적 정보와 심리적, 환경적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

연구 대상의 연령, 부모의 연령 및 교육 수준과 직업, 가족구성원수, 종교, 하루 평균 컴퓨터 게임 시간, TV 시청 시간, 스릴과 모험적인 경험을 해 보고 싶은 자극추구 동기,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관찰한 경험, 또래집단의 폭력성 정도, 음주 경험 여부, 학교 성적을 묻는 문항들과, 스트레스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a) 스트레스 척도: 학교성적, 집안사정,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구관계, 이성친구, 선생님과의 관계, 건강 및 외모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묻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에서 ‘매우 많이 받는다’의 5점 척도이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Alpha는 .88로 산출되었다.

b) 자아존중감 척도: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Cronbach Alpha는 .90이었다.

2) 폭력행동척도

청소년의 폭력행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미경(1995)이 제작한 자기보고식 비행척도 문항 중에서, 폭력행동을 측정하는 문항과 김재엽과 최선희(1998)의 폭력비행측정 도구(곽금주(1992)의 공격성측정 도구)의 문항을 기초로 개발하였다. 총 40문항으로 각 문항은 청소년들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을 기술한다(부록1 참조). ‘지난 한학기동안 경험한 폭력행동의 발생빈도를 물었으며 Likert식 5점’ 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치는 (1)없다, (2)1~2번 있다, (3)3~4번 있다, (4)5~6번 있다 (5)많다로 구성되어 있다(부록1 참조).

폭력행동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구인타당도와 공인타당도를 살펴 보았다.

먼저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공통요인분석(commma factor analysis)모델의 주축분해법(Principle axis)을 적용하여 요인분석 하였다. 요인들간의 상관관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각회전(Oblimin rotation)방식을 적용하였으며, 폭력행동의 분류에 있어서 세 가지 분류 즉 신체적 폭력, 심리적(언어적) 폭력, 사회적 폭력에 선행연구들간 일치를 보이므로 (김재엽, 최선희, 1998: 김준호, 이원석, 1995) 3요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요인은 전체 변량의 41%를 설명하여 요인별 문항은 <표 III-3>에 제시하였다.

<표 III-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요인별 문항의 내용을 기초로 요인1은 신체폭력, 요인2는 심각한 대물폭력, 요인3은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으로 요인명을 붙였다. 요인1(신체폭력)은 남의 뺨을 때리다, 밀치다, 남을 단단한 물건으로 치다, 남에게 단단한 물건을 던지다 등의 타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행동으로 볼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2(심각한 대물폭력)는 통제기관 관계자(예, 경찰)에게 발각된 경우에 법적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대물폭력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들면 장난으로 불을 지르다, 오토바이 폭주를 하다,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 흔적을 남기다 등이다. 끝으로 요인3(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은 타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함으로써 심리적 상해를 입히는 폭력행동과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문을 세게 닫는 등의 요인2에서 제시된 수준보다는 비교적 사소한 수준의 대물 폭력행동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폭력행동의 유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념정의를 하였다. 신체폭력은 타인을 손이나 다른 기물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동이며, 심각한 대물폭력은 법적 처벌이 가능한 기물파손, 규칙위반 등의 행동이다. 그리고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은 타인을 향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따돌리는 행위 등 신체적인 폭력이 수반되지는 않으나 타인에게 심리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표 III-3> 폭력행동척도의 요인별 문항과 요인간 상관관계

문항내용	요인명	I	II	III	h^2
22. 발로차거나 주먹으로 때림	요인 I (신체 폭력)	.74	.20	.43	.63
26. 치고박고 싸움		.76	.22	.36	.58
20. 밀치거나 움켜잡고 흔들		.73	.26	.51	.57
16. 때리겠다고 위협함		.67	.28	.58	.55
28. 남의 싸움에 끼여들어 몸싸움을 함		.66	.12	.15	.46
19. 뺨을 때림		.65	.25	.43	.45
25. 남에게 단단한 물건을 던짐		.64	.29	.29	.42
29. 먼저 몸싸움을 걸		.63	.14	.34	.40
21. 남을 단단한 물건으로 치		.60	.22	.29	.36
23. 녹초가 될 때까지 심하게 때림		.55	.13	.23	.31
30.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음		.51	.40	.48	.38
24. 칼이나 흉기로 위협함		.47	.28	.25	.25
27. 패싸움을 함		.46	.13	.14	.22
9. 입금지구역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	요인 II (심각한 대물 폭력)	.27	.76	.30	.58
8. 남의 차를 긁거나 타이어에 흠집을 냄		.18	.74	.18	.55
6. 불을 낸적이 있음		.23	.71	.28	.51
7. 고의로 유리창을 깨뜨림		.16	.61	.17	.46
10. 오토바이 폭주를 함		.28	.59	.22	.36
18. 장난전화를 걸어 욕을 함	.18	.46	.33	.25	
14. 내게 잘못된 사람에 대해 뒤에서 욕하거나 헐담함	요인 III (언어 및 가벼운 대물 폭력)	.24	.25	.69	.49
1. 물건을 던지거나 걷어차		.39	.27	.69	.48
11. 남에게 소리를 지름		.40	.07	.68	.51
12. 남에게 대놓고 욕설을 함		.44	.18	.68	.49
2. 발을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음		.27	.23	.63	.40
15. 어른들에게 큰소리로 대들		.42	.17	.58	.37
3. 건물에 돌이나 오물을 던짐		.26	.22	.57	.32
13. 남을 무시하고 따돌림		.33	.23	.53	.29
17. 걸가는 모르는 사람을 놀리거나 말로 위협함		.41	.27	.41	.24
4. 공공시설물을 고의로 망가뜨림		.12	.24	.42	.19
5. 공공시설물에 펜이나 칼로 흠집을 냄	.13	.14	.41	.17	
아이젠값		8.22	2.18	1.81	
변량원		.27	.07	.06	
요인상관		I	II	III	
I		1			
II		.28	1		
III		.44	.33	1	

행동과 법적 처벌이 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물건을 거칠게 다루어 파손하거나 집어던지는 행동이다.

신뢰도 지수인 Cronbach Alpha는 전체 .91, 하위요인별로는 신체폭력요인(13문항)은 .89, 심각한 대물폭력요인(6문항)은 .81,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요인(11문항)은 .84이었다.

공인타당도는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 폭력행동과 관련되었다고 보고된 심리적, 행동적 변인에 있어서 폭력행동 상·하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분석되었다. 검증방법은 인구통계론적 변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변인 즉, 행동적, 심리적 특성 변인이 연속변인일 경우에는 t검증, 명목변인일 경우에는 X^2 검증을 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III-4>에 제시하였다.

<표 III-4> 폭력행동 수준 상·하집단의 행동, 심리적 특성 비교

변인		상집단 빈도 혹은 평균	하집단 빈도 혹은 평균	t 혹은 x^2
스릴있는 경험을 하고 싶은 정도	전혀 아니다	0	1 (5%)	$x^2 = 14.03^{**}$
	아니다	0	4 (20%)	
	보통이다	3 (12%)	7 (35%)	
	그렇다	8 (32%)	5 (25%)	
	매우 그렇다	14 (56%)	3 (15%)	
컴퓨터(전자) 게임하는 빈도	하지 않음	8 (32%)	4 (20%)	$x^2 = 4.56$
	한달에 2~3회	3 (12%)	2 (10%)	
	일주일에 1회	3 (12%)	0	
	일주일에 2~3회	4 (16%)	4 (20%)	
	매일	7 (28%)	10 (50%)	
하루평균 컴퓨터게임 지속시간 (하루에)	0시간	8 (32%)	0	$x^2 = .07$ (한시간이하와 이상으로 나누 어 검증)
	1시간	1 (4%)	6 (30%)	
	2시간	3 (12%)	2 (10%)	
	3시간	4 (16%)	4 (20%)	
	4시간	2 (8%)	2 (10%)	
	5시간	1 (4%)	0	
	Missing	6 (24%)	6 (30%)	

변인		상집단 빈도 혹은 평균	하집단 빈도 혹은 평균	t 혹은 χ^2
하루평균 T.V.시청 시간	주중(월~금)	3.54(SD=1.62)	3.50(SD=1.73)	t= .08
	주말(토, 일)	6.04(SD=3.11)	5.40(SD=2.87)	t= .64
폭력행동 관찰 경험 여부	없음	8 (32%)	16 (80%)	$\chi^2 = 10.38^{**}$ (경험 유,무로 나누어 검증)
	한학기 1~2회 정도	5 (20%)	2 (10%)	
	한달에 1~2회 정도	1 (4%)	0	
	일주일 1~2회 정도	7 (28%)	1 (5%)	
	거의 매일	2 (8%)	0	
	Missing	2 (8%)	1 (5%)	
친한 친구의 폭력행동 행사 여부	거의 하지 않음	8 (32%)	10 (50%)	$\chi^2 = 1.25$ (폭력행동 행사 유,무로 나누어 검증)
	가끔	10 (40%)	10 (50%)	
	자주	4 (16%)		
	폭력행동 때문 에 근심이상의 처분을 받음	2 (8%)		
	Missing	1 (4%)	5 (25%)	
술취해 본 경험 여부	있음	17 (68%)	5 (25%)	$\chi^2 = 8.22^{***}$
	없음	8 (32%)	15 (75%)	
자아개념		27.35(SD=3.83)	26.95(SD=2.93)	t= .38
스트레스	성적관련	3.68(SD=1.38)	4.05(SD= .83)	t=-1.12
	집안사정관련	3.28(SD=1.54)	1.90(SD= .85)	t=3.81 ^{***}
	부모관계관련	3.12(SD=1.33)	2.20(SD=1.36)	t=2.28*
	형제관계관련	2.80(SD=1.44)	1.95(SD=1.23)	t=2.09*
	친구관계관련	2.76(SD=1.13)	2.15(SD= .99)	t=1.90
	이성관계관련	2.76(SD=1.59)	1.20(SD= .52)	t=4.61 ^{***}
	교사와의 관계관련	3.28(SD=1.46)	1.85(SD=1.09)	t=3.64 ^{**}
	건강관련	2.40(SD=1.23)	1.65(SD= .88)	t=2.31*
외모관련	3.16(SD=1.03)	2.38(SD=1.13)	t=2.67*	

스릴 있는 경험을 해보고 싶은 정도를 물어 본 결과 폭력행동 상집단의 경우는 반 이상이(56%) 매우 해보고 싶다고 답하고 하집단은 15%가 같은 답을 하였다. 반면에 스릴 있는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다고 답한 경우는 상집단은 0%, 하집단은 25% 이었다.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X2검증 한 결과 폭력행동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스릴 있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반응하는 경향이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빈도와 지속 시간에 있어서는 집단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의 38%가 매일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하였으며 18%가 1주일에 2-3회, 11%는 1개월에 2-3회 정도 게임을 한다고 하였다. 동시에 전체의 1/4이상(27%)이 컴퓨터 게임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루평균 컴퓨터 게임에 보내는 시간은 전체의 18%가 3시간 정도, 16%가 1시간 정도, 11%가 2시간 정도라고 말했으며 12%는 4시간, 혹은 5시간 정도 한다고 답했다.

주중과 주말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도 폭력행동 상·하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중에는 하루 평균 3.5시간, 주말에는 5.8시간 T.V.를 본다고 보고하였다.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폭력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관찰 횟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폭력행동 상·하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상집단의 경우 전체의 32%가 전혀 관찰 경험이 없다고 보고하였고, 하집단은 80%이었다. 반면에 일주일에 한, 두 번 혹은 거의 매일 본다고 답한 학생은 상집단의 경우 전체의 36%이었으며 하집단은 5%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간 차이는 상집단이 폭력행동 관찰 경험이 의미 있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의 폭력행동 행사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경향성은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친한 친구들이 폭력행동을 한다고 보고한 빈도가 높았으나 차이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술 취해 본 경험 여부는 폭력행동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술 취해 본 경험

이 있다고 보고한 학생들이 의미있는 차이로 많았다.

자아개념 수준에 있어서는 상·하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연구대상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은 스트레스 종류에 따라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표 III-4>에 의하면 집안사정, 부모와의 관계, 형제관계, 이성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건강, 외모 관련 스트레스에서 폭력행동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의미있는 차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성적과 동성친구 관련 스트레스 수준은 집단간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폭력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행동이나 심리적 특성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일상생활에 있어서 스릴 있는 경험을 더 많이 해보고 싶어 했으며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더 자주 보았다. 또한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술 취해 본 경험이 더 많았으며,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았다. 이상의 결과들을 볼 때 청소년기 폭력행동과 개인적, 맥락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선행연구결과들과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선정이나 상·하 집단 분류과정이 타당하며, 특히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자 폭력 행동 측정 도구가 공인타당도 측면에서 적합함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3) 경험표집방법(Experience Sampling Method)을 실행하기 위한 질문지

일상생활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경험표집방법을 사용한다. 경험표집 방법은(Larson, 1989) 일상생활 환경에서 일정기간동안(대개 일주일) 하루에 수차례씩 무작위로 소리 신호를 주어 신호가 들릴 때마다 같은 내용의 질문에 반복적으로 답하게 하는 방법이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맥락의 내용과 그 맥락 안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루에 7회씩 일주일간 총 49회의 소리신호를 주고 소리신호가 들릴 때마

다 다음의 질문들을 포함하는 질문지를 1장씩 작성하게 한다. 첫째, 객관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1)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2)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3)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의 세가지 질문에 개방식으로 답하게 한다. 이 세가지 질문은 각 개인의 일상생활맥락을 장소,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하고있는 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주관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긍정적정서, 부정적정서, 자유선택수준, 주의집중 수준, 동기 수준, 중요성인지 수준을 묻는 평정척도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서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총 12 문항으로 Izard(1991)가 제시한 12개 정서이며 김경희(1996, 1997)의 연구를 통해서 한국 청소년과 아동에게서도 일관된 유형이 나타난 것으로 검증되어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정서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 12개의 정서측정 문항은 1) 흥미를 느끼는, 2) 기쁜, 3) 깜짝 놀란, 4) 슬픈, 5) 우울한, 6) 화가 나는, 7) 혐오스러운, 8) 무서운, 9) 수줍은, 10) 수치스러운, 11) 죄책감이 드는, 12) 사랑하는을 포함한다. 이들 문항중에서 1), 2), 12)번 문항은 긍정적 정서를 그리고 나머지 9개 문항은 부정적정서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평정척도로 척도치는 1) 정말 아니다, 2) 아닌 것 같다, 3) 그런 편이다, 4) 정말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선택수준, 주의집중수준, 동기수준, 그리고 중요성인지 수준은 Likert식 5점 평정척도 문항으로 척도치는 1) 절대로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정말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심리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유선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지금 하는 행동은 내가 선택한 것입니까?”이며, 주의집중 수준을 묻는 질문은 “지금 하는 행동에 주의집중이 잘 됩니까” 이다. 동기수준은 “지금 하는 행동은 하고싶은 일 입니까”, 그리고 끝으로 중요성인지 수준은 “지금하는 행동은 중요합니까?”이다(부록2 참조).

경험표집방법은 인위적인 환경이 아니라 일상생활 환경에서의 경험을 측정하므로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다. 또한 경험이 일어나는 순간에 측정

하므로 회상에 의한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도 적다(이미리, 1995).

3. 자료수집절차

질문지는 1999년 여름방학을 전후로 하여 7월과 9월 각각 2주씩 총 4주에 걸쳐 배부, 수집되었다. HR 시간을 이용하여,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하여 회수하도록 하였다. 총 280부의 질문지가 배부되고 274부가 회수되어 98%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초기 청소년의 폭력행동의 내용과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274부 모두 분석되었다.

전체 274명의 연구대상 청소년들 중 폭력행동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선별하여 총 45명을 대상으로 하여 경험표집방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경험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질문지칩과 소리신호가 미리 입력된 전자손목시계를 나누어주어 이 두가지를 일주일간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평균 3시간 간격을 두고 분(minutes)을 무작위로 하여 하루에 7회씩 총 49회에 걸쳐 소리신호를 주었고 소리신호가 울릴 때마다 질문지를 1장씩 작성하게 하였다. 작성한 일상생활경험 측정 질문지는 연구자가 매일 학교를 방문하여 수거함으로써 답한 내용을 고치거나 소리신호를 무시하고 한꺼번에 모두 작성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다. 경험표집방법을 적용한 45명의 대상 청소년들 각자에게 총 49회씩 소리신호를 줌으로써 전체 2205부의 일상생활경험 질문지를 회수 할 수 있게 하였는데 회수된 질문지는 총 1697부로 회수율은 77%이었다.

인구론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와 폭력행동 척도는 경험표집방법을 실행하는 첫날 실시하였다. 경험표집방법을 실행한 연구대상 45명의 선별과정은 연구대상의 기술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연구문제 I에 대해서는 폭력행동 유형별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폭력행동의 유형별로 문항평균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이를 상관표집에 대한 t 검증(paired t-test)하였다. 연구문제 II, III, IV의 분석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경험을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면서 보내는지에 대해 개방식으로 답한 내용을 내용분석을 통해 각 맥락의 범주를 정하였다. 기능적인 영역(functional category)별로 맥락의 범주를 정하였는데 장소맥락은 총 6개의 범주로 1) 집에서 내방을 제외한 공간, 2) 내방, 3) 학교, 4) 학원, 5) 여가장소, 6) 이동장소를 포함한다. 활동맥락은 1) 학교수업, 2) 학원 및 과외수업, 3) 개별공부, 4) 적극적 여가활동, 5) pc 게임, 6) 타인과의 대화 및 상호작용, 7) 소극적 여가활동, 8) T.V.보기, 9) 생활유지, 10) 이동 및 다음활동 준비를 포함하는 10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나머지 맥락인 사회적 맥락은 9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2)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서 혼자, 3) 부모님과 함께, 4) 형제와 함께, 5) 동성친구나 친구들, 6) 이성친구나 친구들, 7) 교실에서 급우들과 함께, 8) 교실에서 급우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9) 친척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맥락들로 구성되어 있다.

객관적 일상생활경험의 측정치는 각 맥락 범주에 해당하는 소리신호 빈도의 전체 소리신호 빈도에 대한 백분율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주관적 일상생활경험의 측정치로는 각 맥락 범주에서 측정된 심리상태 점수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I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 맥락범주에 해당하는 소리신호의 전체소리 신호에 대한 백분율을 폭력행동 수준 상·하 집단에 따라 X^2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II에 대해서는 2가지 분석을 하였는데 첫째는 각 심리상태 점수를 종속변수, 맥락의 종류를 독립변수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폭력행동 수준 상·하 집단 따로 실시하였으며, 둘째는 각 맥락에서의 심리상태점수를 종속변수, 폭력행동수준 집단을 독립변수로 하여 t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와 해석

1. 초기 청소년 폭력행동의 내용과 수준

연구문제1의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유형의 폭력행동점수 수준과 각 유형별 수준의 차이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평균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paired t-test결과를 <표 IV-1>에 제시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세 유형의 문항수가 각기 다르므로 상대적 비교를 위해서 문항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표 IV-1> 폭력행동유형별 문항 평균점수의 평균, 표준편차와 paired t-test 결과

폭력행동 유형	신체폭력 ^a		심각한 대물폭력 ^b		언어폭력과 ^c 사소한 대물폭력		a와 c의 paired t-test 결과	b와 c의 paired t-test 결과	a와 c의 paired t-test 결과
	M	SD	M	SD	M	SD			
대상									
남	.59	.62	.23	.37	1.12	.74	7.08***	-15.52***	-12.58***
여	.15	.26	.09	.42	1.16	.71	1.62	-16.02***	-18.6***
전체	.38	.52	.16	.40	1.14	.72	6.32***	-22.11***	-20.83***

<표 IV-1>에 의하면 신체폭력행동과 심각한 대물폭력행동은 평균점수와 척도치를 고려해 볼 때 한 학기에 1-2번도 경험한적이 없는 학생들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준편차가 평균치보다 크므로 개인차가 큰 행동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빈도 분포를 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신체폭력행동은 전체의 17%가 한학기 1-2번 혹은 그 이상 행사해 본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나머지 83%는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심각한 대물폭력행동 수준은 빈도분포에 있어서 그 변산의 정도가 더 큰데, 96%가 지난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

다. 여학생의 경우는 97%가 신체폭력행동을 거의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심각한 대물폭력은 99%가 거의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세번째 유형인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행동은 연구 대상 중 학생들이 한 학기에 평균 1-2번 정도는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에 제시된 폭력행동점수가 문항 평균점수 임을 고려해 볼 때 언어폭력과 사소한 대물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된 11문항 모두에 대해서 거의 1-2번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반응한 것이다.

세 가지 폭력행동의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신체폭력 점수와 심각한 대물폭력점수의 분포가 편포를 보이므로 세 유형의 폭력행동점수를 모두 제곱근 점수로 변환한 후, 각 유형간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평균 점수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대로 paired t-test 결과 남학생의 경우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행동을 가장 많이 보이고, 다음은 신체폭력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심각한 대물폭력행동을 가장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유형의 폭력행동 중에서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행동을 가장 많이 보이나 신체폭력행동과 심각한 대물폭력행동 간에는 의미있는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청소년 초기 일상생활경험

1) 일상생활 맥락별 하루 시간 사용비율

(1) 장소맥락별 하루 시간 사용비율

청소년들이 하루중 깨어 있는 시간을 집, 학교, 여가장소 및 이동 장소를 비롯한 각 장소 맥락에서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장소 맥락에서 반응한 소리 신호의 전체 소리 신호에 대한 비율을 산출하고, 이러한 비율에 있어서 남녀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X^2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IV-2>에 제시하였다.

<표 IV-2> 장소맥락에 따른 시간 사용비율

장소 맥락범주	집단	상집단 빈도(%)	하집단 빈도(%)	전체 빈도(%)
공부		370(41.2)	408(50.3)	778(45.6)
학교 및 학교관련공공장소		341(38.0)	323(39.9)	664(38.9)
여가장소		114(12.7)	46(5.7)	160(9.4)
이동장소		72(8.0)	33(4.1)	105(6.2)
전체		897(100)	810(100)	1707(100)
집(내방제외)		273(30.4)	324(30.2)	599(35.1)
내방		97(10.8)	82(10.1)	179(10.5)
학교		285(31.8)	265(32.7)	550(32.2)
학원 및 과외 수업장소		56(6.2)	58(7.2)	114(6.7)
여가장소		114(12.7)	46(5.7)	160(9.4)
이동장소		72(8.0)	33(4.1)	105(6.2)
전체		897(100)	810(100)	1707(100)

<표 IV-2>에 의하면 연구대상 청소년들은 깨어 있는 시간 중 가장 많은 비율을(46%) 집에서 보낸다. 구체적으로 35%는 집에서 내방을 제외한 공간에서 보내며 11%는 내방에서 보낸다. 다음으로 많은 시간은 학교에서 보낸다(32%). 나머지 시간은 학원, 독서실을 비롯한 학습 관련 공공장소, 실내외 여가 장소, 그리고 이동장소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장소에 대한 시간분배 유형에 있어서 성차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한 X^2 검증 결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여가 장소와 이동장소에서 자기의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높았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집에서 내방을 제외한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높았다. 이와같이 다양한 장소맥락에서 보내는 시간의 유형에 있어서 성차를 보이므로 폭력행동 수준에 따른 장소맥락별 시간사용

유형 분석에서는 성별에 의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남녀 따로 분석하였다.

(2) 사회적 맥락별 하루시간 사용비율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하루 시간 사용비율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를 <표 IV-3>에 제시하였다

<표 IV-3> 사회적 맥락별 시간 사용비율

집단 사회적 맥락	집단			집단 사회적 맥락	집단		
	남학생 빈도(%)	여학생 빈도(%)	전체 빈도(%)		남학생 빈도(%)	여학생 빈도(%)	전체 빈도(%)
혼자	390(43.8)	244(30.2)	634(37.4)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204(22.9)	135(16.7)	339(20.0)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서 혼자	186(20.8)	109(13.5)	295(17.4)
가족	132(14.9)	212(26.2)	344(20.3)	부모	93(10.5)	156(19.3)	249(14.7)
				형제	39(4.4)	56(6.9)	95(5.6)
친구	140(15.7)	64(8.0)	204(12.0)	동성친구	114(12.8)	49(6.1)	163(9.6)
				이성친구	26(2.9)	15(1.9)	41(2.4)
급우	210(23.6)	273(33.8)	483(28.5)	급우들	79(8.9)	104(12.9)	183(10.8)
				급우들과 선생님	131(14.7)	169(20.9)	300(17.7)
기타	17(1.9)	15(1.9)	32(1.9)	기타(친척 혹은 과외선생님)	17(1.9)	15(1.9)	32(1.9)
전체	889(100)	808(100)	1697(100)	전체	889(100)	808(100)	1697(100)

<표 IV-3>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맥락은 혼자, 가족, 친구, 급우, 급우와 학교선생님, 그리고 친척이나 과외선생님 등의 기타 범주로 크게 나누어 볼 때 혼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다음은 급우

들과 함께, 다음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친구와 함께, 끝으로 기타 사회적 맥락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깨어있는 시간의 37%를 혼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보내는 경우가 20%,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으나 그들과 상호작용이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17%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교실에서 급우들과 함께 앉아 있으나 그들과 상호작용이 없고 청소년 스스로가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반응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혼자 보내는 시간 다음으로 급우들과 보내는 시간이 길었는데 이 시간은 주로 학교에 있는 시간으로 급우들과 선생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전체 깨어있는 시간의 18%, 급우들만 함께 있는 경우가 11%였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함께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모두 함께, 혹은 부모와 형제가 함께 있는 경우로 적어도 부모 중 한 사람이 함께 있는 경우와, 부모님은 없이 형제만 함께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보았을 때 전자의 경우에는 하루시간의 15%를 보내고, 후자의 경우에는 6%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친구와 함께 있는 맥락은 동성친구와 함께 있는 맥락과 이성친구와 함께 있는 맥락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급우라 하더라도 그들 중 몇 명과 방과 후에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학교에 있는 동안이라도 그들 중 몇 명과 상호작용을 하는 중이면 친구와 함께 있는 맥락으로 분류하였다. 하루시간의 10%를 동성친구와 2%를 이성친구와 함께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의 하루시간 사용유형에 있어서 성차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X^2 검증한 결과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하루시간 중 혼자 보내는 시간과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서 가족 특히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과 급우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높았다. 이

와 같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보내는 시간의 유형에 있어서 성차를 보이므로 폭력행동 수준에 따른 사회적 맥락별 시간사용 유형 분석에서는 성별에 의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남녀 따로 분석하였다.

(3) 활동맥락별 하루시간 사용비율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을 공부, 여가, 그리고 생활유지 및 기타 활동에 어느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를 <표 IV-4>에 제시하였다.

<표 IV-4> 활동맥락별 시간 사용비율

집단 활동 맥락3범주	남학생	여학생	전체	집단 활동 맥락 10범주	남학생	여학생	전체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1.공부	227(25.8)	213(26.4)	440(26.1)	1.학교수업	100(11.4)	109(13.5)	209(12.4)
				2.학원 (과외)수업	46(5.2)	34(4.2)	80(4.7)
				3.개별공부	81(9.2)	70(8.7)	151(9.0)
2.여가	411(46.6)	322(40.1)	733(43.4)	4.적극적 여가	64(7.3)	40(5.0)	104(6.2)
				5.PC game	104(11.8)	13(1.6)	117(6.9)
				6.타인과의 대화나 상호작용	70(7.9)	60(7.5)	130(7.7)
				7.소극적 여가	66(7.5)	83(10.3)	149(8.8)
3.생활 유지 및 기타	243(27.6)	270(33.5)	513(30.5)	8.T.V보기	107(12.1)	126(15.7)	233(13.8)
				9.생활유지	152(17.3)	178(22.1)	330(19.6)
전체	881(100)	805(100)	1686(100)	10.이동 및 다음활동 준비	91(10.3)	92(11.4)	183(10.9)
				전체	881(100)	805(100)	1686(100)

<표 IV-4>에 의하면 학교수업, 학원이나 과외 수업, 개별적으로 혼자 하는 공부 등을 포함해서 공부 하는데 하루 깨어있는 시간의 26%, 적극적 여가, pc 게임,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상호작용, 소극적 여가, 그리고 TV보기 등을 포함한 여가 활동을 위해서는 43%, 그리고 잠자고, 먹고,

셋고, 이동하고, 다음 활동을 준비하는 등의 생활유지 활동을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간의 31%를 보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시간 사용 유형에 있어서 성차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X^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하루중 깨어있는 시간의 26%를 공부하는데, 47%를 여가 활동에 나머지 28%를 생활유지 활동에 보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26%를 공부하는데, 40%를 여가활동에, 그리고 34%를 생활유지활동에 보냄으로써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여가시간을 적게 갖는 반면, 생활유지활동에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활동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0개의 범주로 분류된 활동 범주별 시간 사용 백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적극적 여가활동과 pc 게임을 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학교수업, 소극적 여가, TV보기, 생활유지활동에 자신의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와같이 활동범주별로 시간 사용비율에 있어서 성차를 보이므로 폭력행동상하 집단간 활동범주별 시간 사용 비율의 차이는 남녀 따로 분석하였다.

2) 일상생활맥락별 심리상태

(1) 장소맥락별 심리상태

연구대상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각 장소 맥락에서 경험하는 심리상태의 수준이 장소맥락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표 IV-5>에 제시하였다.

<표 IV-5>에 의하면 다양한 일상생활 장소맥락 중 여가장소에서 가장 긍정적 정서반응을 보였고 학교, 학교이외의 학습관련 장소, 이동장소에서의 긍정적 정서반응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체적으로 집, 내방, 여가장소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 반응 수준이 학교와 학교이외의 학습

관련 장소, 그리고 이동장소에서 경험하는 수준보다 높았다. 한편, 부정적 정서반응은 내방에 있을 때의 부정적 정서가 내방을 제외한 집의 다른 공간에서의 부정적 정서 수준보다 낮았다.

<표 IV-5> 장소맥락별 심리상태 수준 비교

심리 상태	장소 맥락	집		3. 학교	4.학원 및 과외 수업 장소	5.여가 장소	6.이동 장소	F	Scheffé
		1.집 (내방 제외)	2. 내방						
긍정적 정서	\bar{X}	2.16	2.21	1.89	1.83	2.37	1.75	20.40**** df(5.1655)	1>6,4,3 2>6,4,3 5>6.4,3
	SD	.79	.75	.75	.58	.71	.72		
부정적 정서	\bar{X}	1.38	1.24	1.31	1.25	1.36	1.36	4.01** df(5.1654)	1>2
	SD	.45	.37	.42	.35	.43	.46		
자유 선택수준	\bar{X}	3.05	3.10	2.29	2.18	3.14	3.00	41.02**** df(5.1694)	6>4,3 2>4,3 1>4,3 5>4,3
	SD	1.00	1.00	1.28	1.12	1.12	1.12		
주의집중 수준	\bar{X}	2.72	2.93	2.18	2.11	2.77	2.56	22.55**** df(5.1694)	1>4,3 2>4,3 5>4,3
	SD	1.10	1.04	1.19	1.05	1.27	1.19		
동기수준	\bar{X}	2.78	2.92	2.08	1.87	2.89	2.58	34.93**** df(5.1695)	6>4,3 5>4,3 1>4,3 2>4,3
	SD	1.12	1.13	1.27	1.09	1.22	1.26		
중요성 인지 수준	\bar{X}	2.36	2.74	2.49	2.85	2.24	2.63	6.50**** df(5.1654)	2>5,1 4>5,1
	SD	1.24	1.16	1.25	1.07	1.27	1.22		

정서상태를 제외한 다른 심리상태, 즉 자유선택 수준, 주의집중 수준, 동기 수준에 있어서도 집, 내방, 그리고 여가장소에 있을 때가 학교를 비롯한 학습 관련 장소에 있을 때보다 높았다. 반면에 중요성 인지 수준에 있어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학습관련 장소와 내방에 있을 때가 여가 장소나 집에 있을 때보다 중요성 인지 수준이 높았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장소맥락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에 있어서 성차를 보이는데 이를 살펴보기 위해 각 장소맥락별 심리적 상태 점수를 성별로 t검정한 결과 장소 맥락의 범주별로 긍정적 정서를 비롯한 다양한 심리적 상태에 있어서 성차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장소맥락에서 경험하는 심리상태가 폭력행동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성별 변인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폭력행동수준에 따른 각 일상생활 장소맥락별 심리상태의 차이를 분석은 남녀 따로 실시하였다.

(2) 사회적 맥락별 심리상태수준 비교

하루중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자유선택 수준, 주의 집중수준, 동기수준, 중요성인지수준이 사회적 맥락의 범주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9개의 사회적 맥락 범주별로 각 심리상태의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사회적 맥락 범주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를 <표 IV-6>에 제시하였다.

<표 IV-6> 사회적 맥락별 심리상태 수준 비교

사회적 맥락	심리상태	혼자		가족		친구		급우		기타	F	Scheffé
		1.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2.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서 혼자	3. 부모	4. 형제	5. 동성 친구들	6. 이성 친구들	7. 급우들	8. 급우들과 선생님	9. 기타		
긍정적 정서	\bar{X}	2.07	1.98	2.28	2.21	2.16	2.36	1.92	1.85	2.02	8.44****	5>8 4>8 3>8,7,2 6>8
	SD	.73	.72	.81	.69	.77	.89	.79	.67	.72		
부정적 정서	\bar{X}	1.37	1.38	1.29	1.34	1.40	1.46	1.24	1.27	1.28	4.26****	
	SD	.45	.44	.43	.43	.46	.53	.34	.39	.33		
자유선택 수준	\bar{X}	3.07	2.78	3.00	3.16	3.14	3.15	2.41	2.00	2.91	28.77****	2>8 9>8 3>8,7 1>8,7 5>8,7 6>8 4>8,7
	SD	1.07	1.11	1.06	.95	1.09	1.06	1.27	1.18	1.12		
주의 집중 수준	\bar{X}	2.75	2.48	2.70	2.92	2.79	2.68	2.19	2.04	2.63	13.931****	2>8 3>8,7 1>8,7 5>8,7 4>8,7
	SD	1.13	1.13	1.12	1.03	1.22	1.37	1.18	1.10	1.21		
동기 수준	\bar{X}	2.80	2.39	2.84	2.81	2.95	2.90	2.08	1.89	2.44	22.88****	2>8 1>8,7,2 4>8,7 3>8,7,2 6>8,7 5>8,7,2
	SD	1.19	1.18	1.14	1.20	1.18	1.020	1.27	1.14	1.41		
중요성 인지 수준	\bar{X}	2.61	2.51	2.29	2.17	2.43	2.56	2.43	2.56	2.84	2.62**	
	SD	1.21	1.23	1.23	1.19	1.33	1.34	1.25	1.17	1.17		

<표 IV-6>에 의하면 대체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맥락에서 경험하는 심리상태가 급우들 혹은 급우들과 선생님이 함께 있는 맥락에서 경험하는 심리상태보다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또한 혼자 있는 경우도 급우들과 함께 있는 맥락보다 심리적 상태가 더욱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정서상태 수준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있을 때가 급우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경우보다 더 높았으며, 특히 부모와 함께 있을 때가 급우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경우와 또한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서 혼자 있는 경우보다 더욱 높았다. 그러나 부정적 정서 수준은 일원변량분석 결과 사회적 맥락의 종류에 따라 그 수준이 의미있게 달랐으나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어느 두 맥락 간 부정적 정서 수준이 의미있게 차이나지는 않았다.

자유선택수준, 주의집중 수준, 동기 수준은 혼자있거나 가족들과 함께 있거나 친구와 함께 있을 때의 수준이 급우들과 함께 있는 맥락이나 혹은 급우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있는 맥락에서 보다 높았다. 그러나 중요성 인지 수준은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맥락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사회적 맥락별 심리상태 수준에 있어서 성차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맥락에서 경험하는 심리상태 수준점수를 t검증한 결과 형제와 함께 있는 맥락, 이성친구와 함께 있는 맥락, 그리고 기타 맥락을 제외하고 모든 맥락에서 성차를 보였으며 그 성차의 방향과 성차를 보이는 심리 상태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심리상태가 폭력행동수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을 통제해야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3) 활동맥락별 심리상태 수준 비교

10개의 활동맥락별 심리상태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IV-7>에 제시하였다.

<표 IV-7>에 의하면 여가활동맥락에서 경험하는 심리상태가 공부를

하는 맥락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PC게임을 하는 동안의 심리상태는 다른 대부분의 활동맥락에서 경험하는 상태보다 긍정적이었다.

각 활동맥락별 심리상태수준에 있어서 성차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한 결과 세 맥락(개별공부, 적극적 여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제외하고 모든 맥락에서 그리고 다양한 심리상태에 있어서 성차를 보이므로 활동맥락에 따른 심리적 상태의 변화가 폭력행동수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성차를 통제하기 위해 남녀 따로 분석하였다.

<표 IV-7> 활동맥락별 심리상태 수준 비교

사회적 맥락	심리상태	공부			여가				생활유지 및 기타		F	Scheffé	
		1. 학교 수업	2. 학원 (과외) 수업	3. 개별 공부	4. 적극적 여가	5. pc 게임	6. 타인과의 대화 및 상호 작용	7. 소극적 여가	8. TV 보기	9. 생활 유지			10. 이동 및 다음 활동 준비
긍정적 징서	\bar{X}	1.78	1.77	1.68	2.36	2.52	2.22	2.35	2.51	1.86	1.75	39.59***	6>3,10,2,1,9 7>3,10,2,1,9 4>3,10,2,1,9 8>3,10,2,1,9 5>3,10,2,1,9
	SD	.69	.60	.54	.75	.63	.86	.73	.60	.71	.69		
부정적 징서	\bar{X}	1.25	1.25	1.39	1.30	1.26	1.43	1.43	1.34	1.29	1.33	3.90***	
	SD	.38	.40	.46	.37	.40	.47	.49	.42	.40	.43		
자유 선택 수준	\bar{X}	1.94	2.01	2.25	3.01	3.67	2.90	3.10	3.11	2.92	2.66	36.36***	10>1,2, 6>1,2,3 9>1,2,3, 4>1,2,3, 7>1,2,3, 8>1,2,3, 5>1,2,3,10,6,9,4,7,8
	SD	1.13	1.16	1.27	1.09	.67	1.22	1.06	.79	1.13	1.20		
주의 집중 수준	\bar{X}	2.04	2.05	2.07	2.72	3.41	2.52	2.72	2.78	2.63	2.34	20.12***	9>1,2,3, 4>1,3 7>3,1,2, 8>1,2,3 5>1,2,3,10,6,9,4,7,8
	SD	1.05	1.07	1.16	1.23	.85	1.27	1.15	1.15	1.17	1.18		
동기 수준	\bar{X}	1.78	1.80	1.69	2.84	3.44	2.65	2.75	2.92	2.76	2.31	38.19***	10>3,1, 6>3,1,2 7>3,1,2, 9>3,1,2,10 4>3,1,2, 8>3,1,2,10 5>3,1,2,10,6,7,9
	SD	1.07	1.11	1.13	1.21	.79	1.31	1.13	.90	1.25	1.28		
중요성 인지 수준	\bar{X}	2.69	2.91	2.90	2.71	2.40	2.09	2.13	1.89	2.72	2.57	15.56***	10>8, 1>8,6,7 4>8, 9>8,6,7 3>8,6,7, 2>8,6,7,
	SD	1.12	1.06	1.13	1.13	1.20	1.38	1.28	1.14	1.22	1.15		

3. 일상생활맥락의 객관적 경험에 있어서 폭력행동 수준에 따른 차이

1) 장소맥락별 하루시간 사용 비율에 있어서 폭력행동 수준에 따른 차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장소맥락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폭력행동 수준 상하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남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 12에 여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 IV-9>에 제시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의 경우만 폭력행동 수준 상·하 집단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폭력행동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학생의 경우 폭력행동 상집단은 하집단에 비해 집(내방제외), 여가장소, 이동장소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컸고 하집단은 상집단에 비해 내방과 학습관련 장소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컸다(<표 IV-8> 참조).

<표 IV-8> 남학생의 장소맥락별 시간 사용 비율에 있어서 폭력행동 집단간 차이

장소 맥락범주	집단			장소 맥락 범주	집단		
	상집단 빈도(%)	하집단 빈도(%)	전체 빈도(%)		상집단 빈도(%)	하집단 빈도(%)	전체 빈도(%)
공부	192(40.3)	178(42.4)	370(41.2)	집(내방제외)	174(36.5)	99(23.6)	273(30.4)
				내방	18(3.8)	79(18.8)	97(10.8)
학교 및 학교관련 공공장소	160(33.5)	181(43.1)	341(38.0)	학교	148(31.0)	137(32.6)	285(31.8)
				학원 및 과외 수업장소	12(2.5)	44(10.5)	56(6.2)
여가장소	77(16.1)	37(8.8)	114(12.7)	여가장소	77(16.1)	37(8.8)	114(12.7)
이동장소	48(10.1)	24(5.7)	72(8.0)	이동장소	48(10.1)	24(5.7)	72(8.0)
전체	477(100)	420(100)	897(100)	전체	477(100)	420(100)	897(100)

한편 여학생의 경우는 <표 IV-9>에 의하면 각 장소맥락에 대한 하루시간 사용 비율이 폭력행동 수준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장소에서 보내는 시간 사용 유형이 남학생의 경우는 폭력행동 수준과 관련된 변인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폭력행동 수준을 설명하기에 민감한 변인이 아님을 말해준다고 해석될 수 있다.

<표 IV-9> 여학생의 장소맥락별 시간 사용 비율에 있어서 폭력행동 집단간 차이

집단 장소 맥락범주	집단			집단 장소 맥락 범주	집단		
	상집단 빈도(%)	하집단 빈도(%)	전체 빈도(%)		상집단 빈도(%)	하집단 빈도(%)	전체 빈도(%)
공부	207(50.3)	201(50.5)	408(50.3)	집(내방제외)	170(41.3)	156(39.2)	326(40.2)
				내방	37(9.0)	45(11.3)	82(10.1)
학교 및 학교관련 공공장소	166(40.3)	157(39.5)	323(39.9)	학교	133(32.3)	132(33.2)	265(32.7)
				학원 및 과외 수업장소	33(8.0)	25(6.3)	58(7.2)
여가장소	19(4.6)	27(6.8)	46(5.7)	여가장소	19(4.6)	27(6.8)	46(5.7)
이동장소	20(4.9)	13(3.3)	33(5.7)	이동장소	20(4.9)	13(3.3)	33(4.1)
전체	412(100)	398(100)	810(100)	전체	412(100)	398(100)	810(100)

2) 사회적 맥락별 하루시간 사용 비율에 있어서 폭력행동수준에 따른 차이

먼저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맥락별 시간 사용 비율에 있어서 폭력행동 상하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X^2(8, N=889)=140.68, P=.0000, \text{Cramer's } V=.40, P=.0000$). 분석 결과는 <표 IV-10>에 제시하였다.

<표 IV-10>에 의하면 폭력행동 수준 상집단 남학생이 하집단 남학생에 비해 혼자, 가족, 그리고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높은 반면, 급우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낮았다. 특히 혼자있는 맥락은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냐 아니면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서 혼자냐에 따라 폭력 행동 상·하 집단간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비율은 상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혼자 있는 맥락이라 하더라도 주위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맥락의 질적 특성은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한다.

전체적으로 남학생의 경우 폭력행동수준 상집단은 하집단에 비해 비교적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사회적 맥락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높은 반면, 폭력행동 수준 하집단은 상집단에 비해 비자발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맥락, 이를테면 급우들과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흥미로운 결과는 폭력행동 수준 상·하집단 모두 기타 사회적 맥락을 제

<표 IV-10> 남학생의 사회적 맥락별 시간사용 비율에 있어서 폭력행동 집단간 차이

집단 사회적 맥락	상집단	하집단	전체	집단 사회적 맥락	상집단	하집단	전체
	빈도(%)	빈도(%)			빈도(%)	빈도(%)	
혼자	235(50.2)	155(36.9)	390(43.8)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93(19.9)	111(26.4)	204(22.9)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서 혼자	142(30.3)	44(10.5)	186(20.9)
가족	75(16.0)	57(13.5)	132(14.9)	부모	53(11.3)	40(9.5)	93(10.5)
				형제	22(4.7)	17(4.0)	39(4.4)
친구	94(20.0)	46(10.9)	140(15.7)	동성친구	69(14.7)	45(10.7)	114(12.8)
				이성친구	25(5.3)	1(2)	26(2.9)
급우	52(11.1)	158(37.6)	210(23.6)	급우들	13(2.8)	66(15.7)	79(8.9)
				급우들과 선생님	39(8.3)	92(21.9)	131(14.7)
기타	12(2.6)	5(1.2)	17(1.9)	기타(친척 혹은 과외선생님)	12(2.6)	5(1.2)	17(1.9)
전체	468(100)	421(100)	889(100)	전 체	468(100)	421(100)	889(100)

외하고 이성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다른 맥락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율에 비해 가장 낮았으나 상집단의 경우는 총 468회의 소리 신호 중 25회가 이성친구와 함께 있는 순간이었으나 하집단의 1회 만이 이성친구와 함께 있는 순간으로 상·하 집단간 비율의 차이가 모든 사회적 맥락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겠다.

다음은 여학생의 경우에 사회적 맥락별 시간 사용 비율에 있어서 폭력행동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를 <표 IV-11>에 제시하였다.

<표 IV-11> 여학생의 사회적 맥락별 시간사용 비율에 있어서 폭력행동 집단간 차이

집단 사회적 맥락 5	집단			집단 사회적 맥락 9	집단		
	상집단 빈도(%)	하집단 빈도(%)	전체 빈도(%)		상집단 빈도(%)	하집단 빈도(%)	전체 빈도(%)
1.혼자	126(30.6)	118(29.7)	244(30.2)	1.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61(14.8)	74(18.6)	135(16.7)
				2.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서 혼자	65(15.8)	44(11.1)	109(13.5)
2.가족	110(26.7)	102(25.7)	202(26.2)	3.부모	75(18.2)	81(20.4)	156(19.3)
				4.형제	35(8.5)	21(5.3)	56(6.9)
3.친구	41(10.0)	23(5.8)	64(8.0)	5.동성친구	30(7.3)	19(4.8)	49(6.1)
				6.이성친구	11(2.7)	4(1.0)	15(1.9)
4.급우	128(31.1)	145(36.6)	273(33.8)	7.급우들	49(11.9)	55(13.9)	104(12.9)
				8.급우들과 선생님	79(19.2)	90(22.7)	169(20.9)
5.기타	6(7)	9(2.3)	15(1.9)	9.기타	6(7)	9(2.3)	15(1.9)
전체	411(100)	397(100)	808(100)	전체	411(100)	397(100)	808(100)

여학생의 각 사회적 맥락에 대한 시간사용비율에 있어서 폭력행동 수준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χ^2 검증 결과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8, N=808)=16.19^*$, Cramer's $V=.14^*$). 혼자 있는 시간의 비율은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여학생 집단의 경우 31%, 낮은 여학생 집단의 경우 30%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하위 범주로 보았을 때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여학생 집단은 낮은 여학생 집단보다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높았으며, 반면에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비율은 낮았다.

한편,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의 비율은 폭력행동 상집단의 경우 27%, 하집단의 경우 26%로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범주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폭력 점수 상집단의 여학생들은 하집단에 비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낮은 반면, 형제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높았다.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비율은 폭력행동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높았다. 끝으로 교실에 급우들과 보내는 시간의 비율은 폭력행동 수준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낮았다.

전체적으로 여학생들의 폭력행동수준에 따른 사회적 맥락에 대한 시간 사용비율의 차이를 보면, 폭력행동수준 상·하 집단 간 차이를 많이 보이는 맥락이 친구와 함께 있는 맥락이었다.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여학생들은 낮은 여학생들에 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낮은 여학생들은 비자발적으로 구성된 급우들과 교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폭력행동수준에 따라 혼자 시간을 보내는 맥락적 특성이 달랐는데 폭력행동 상집단의 경우도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으나 그들과 상호작용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하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하집단은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예를 들면 자기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상집단에 비해 높았다.

3) 활동 맥락별 하루시간 사용 비율에 있어서 폭력행동수준에 따른 차이

10개의 활동맥락별 하루시간 사용 유형이 폭력수준 상하집단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남녀 따로 분석하였으며 남학생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12>에 여학생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13>에 제시하였다.

폭력행동수준 상하집단간 활동맥락별 시간 사용 유형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그 내용은 달랐다. <표 IV-12>에 의하면 남학생의 경우는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집단이 폭력행동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개별 공부, 다른 사람(주로 친구)과의 상호작용,

<표 IV-12> 남학생의 활동맥락별 시간사용 비율에 있어서 폭력행동 집단간 차이

집단 활동 맥락3범주	집단			집단 활동 맥락 10범주	집단		
	상집단 빈도(%)	하집단 빈도(%)	전체 빈도(%)		상집단 빈도(%)	하집단 빈도(%)	전체 빈도(%)
1.공부	103(22.3)	124(29.7)	227(25.8)	1.학교수업	35(7.6)	65(15.6)	100(11.4)
				2.학원 (과외)수업	6(1.3)	40(9.6)	46(5.2)
				3.개별공부	62(13.4)	19(4.5)	81(9.2)
2.여가	226(48.8)	185(44.3)	411(46.6)	4.적극적 여가	34(7.3)	30(7.2)	64(7.3)
				5.PC game	48(10.4)	56(13.4)	104(11.8)
				6.타인과의 대화나 상호작용	50(10.8)	20(4.8)	70(7.9)
				7.소극적 여가	33(7.1)	33(7.9)	66(7.5)
				8.T.V보기	61(13.2)	46(11.0)	107(12.1)
3.생활 유지 및 기타	134(29.0)	109(26.1)	243(27.6)	9.생활유지	92(19.9)	60(14.4)	152(17.3)
				10.이동 및 다음활동 준비	42(9.1)	49(11.7)	91(10.3)
전체	463(100)	418(100)	881(100)	전체	463(100)	418(100)	881(100)

TV보기, 생활유지활동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폭력행동수준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학교수업, 학원이나 과외수업, pc게임, 이동이나 다음 활동준비를 위한 활동에 자신의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표 IV-13>에 의하면 남학생과 다른 유형이 나타났다. 여학생 중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소극적 여가활동, 이동이나 다음활동 준비를 위한 활동에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폭력행동수준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학교수업, 적극적 여가, pc게임, 생활유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표 IV-13> 여학생의 활동맥락별 시간사용 비율에 있어서 폭력행동 집단간 차이

집단 활동 맥락3범주	집단			집단 활동 맥락 10범주	집단		
	상집단 빈도(%)	하집단 빈도(%)	전체 빈도(%)		상집단 빈도(%)	하집단 빈도(%)	전체 빈도(%)
1.공부	98(24.0)	115	213	1.학교수업	47(11.5)	62(15.6)	109(13.5)
				2.학원 (과외)수업	18(4.4)	16(4.0)	34(4.2)
				3.개별공부	33(8.1)	37(9.3)	70(8.7)
2.여가	175(42.9)	147(36.9)	322(40.1)	4.적극적 여가	14(3.4)	26(6.5)	40(5.0)
				5.PC game	3(7)	10(2.5)	13(1.6)
				6.타인과의 대화나 상호작용	36(8.8)	24(6.0)	60(7.5)
				7.소극적 여가	61(15.0)	22(5.5)	83(10.3)
3.생활 유지 및 기타	135(33.1)	135(34.0)	270(33.5)	8.T.V보기	61(15.0)	65(16.4)	126(15.7)
				9.생활유지	81(19.9)	97(24.4)	178(22.1)
전체	408(100)	397(100)	805(100)	10.이동 및 다음활동 준비	54(13.2)	38(9.6)	92(11.4)
				전체	408(100)	397(100)	805(100)

종합해보면 남녀학생모두, 폭력행동수준 상하집단간 같은 방향의 차이를 보이는 활동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활동이었으며, 그의 활동범주에 대한 시간사용비율에 있어서의 폭력수준집단간 차이는 남녀가 다르게 혹은 차이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났다. 즉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활동에 대한 하루 시간사용백분율은 남녀모두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생활유지 활동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경우는 폭력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시간사용비율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폭력 하집단이 더 높았다.

또한 이동 및 다음 활동 준비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경우 폭력 하집단이 시간사용비율이 높는데 비해, 여학생은 폭력 상집단이 시간사용비율이 더 높았다. 끝으로 TV보기 활동은 남학생은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집단에게서 여학생은 폭력행동수준이 낮은 집단에게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남학생의 경우로 적극적 여가 활동에 보낸 시간의 깨어있는 시간에 대한 비율은 폭력행동수준 상하집단 모두 약 7%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데 반해, 여학생은 폭력 상집단이 3%, 하집단은 7%로 폭력수준이 낮은 집단에 높은 집단에 비해 하루 시간 중 적극적 여가에 보내는 시간의 백분율이 높았다.

4. 일상생활맥락의 주관적 경험에 있어서 폭력행동 수준에 따른 차이

1) 장소맥락별 주관적 경험에 있어서 폭력행동 수준에 따른 차이

(1) 장소맥락별 심리상태수준의 다양성 유형에 있어서 폭력행동수준에 따른 차이

먼저 남학생의 장소맥락변화에 따른 심리상태의 다양성 유형이 폭력행동수준 상하 집단간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IV-14>에 제시하였다.

<표 IV-14>에 의하면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남학생 집단과 낮은 남학생 집단 모두 부정적 정서수준은 장소맥락의 변화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집(내방 제외)에 있을 때와 여가장소에 있을 때의 긍정적 정서수준, 자유선택수준, 주의집중수준, 동기수준이 학교에 있을 때의 수준보다 더욱 긍정적이며 높았다.

한편 폭력 행동수준에 따른 차이는 내방과 이동장소에서의 심리적 경험에서 나타났다.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남학생은 주로 집(내방 제외)과 여가장소와 함께 이동장소에서의 심리적 경험이 긍정적인 반면, 폭력행동수준이 낮은 남학생은 집(내방 제외)과 여가장소와 함께 내방에서의 심리적 경험이 긍정적이었다.

여학생의 장소맥락변화에 따른 심리상태의 다양성 유형이 폭력행동수준 상하집단 간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표 IV-15>에 제시하였다. <표 IV-15>에 의하면 상·하 집단 모두 집과 여가장소에서의 심리 상태가 학교에서 보다 더욱 긍정적이었다. 한편 폭력행동수준 상하집단간 심리차이는 부정적 정서수준과 중요성인지수준에서 나타났는데,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여학생 집단은 중요성인지수준에 있어서 장소의 변화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낮은 여학생집단은 내방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의 중요성인지수준이 집(내방제외)에 있을 때의 수준보다 높았다. 또한 폭력행동수준이 낮은 여학생 집단은 부정적 정서수준에서 장소의 변화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높은 여학생 집단은 다양한 장소 중 내방에 있을 때 가장 부정적 정서가 약했는데 집에서 내방을 제외한 곳에 있을 때의 부정적 정서가 내방에 있을 때의 부정적 정서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표 IV-14> 남학생의 장소맥락별 심리상태의 다양성 유형에 있어서 폭력행동 집단간 비교

집단	장소 맥락 심리상태		집		3. 학교	5.여가 장소	6.이동 장소	F	Scheffé
			1.집 (내방 제외)	2.내방					
상 집 단	긍정적 정서	\bar{X}	2.16	2.28	1.92	2.29	1.74	6.84****	1>5 4>5,3
		SD	.70	.73	.70	.73	.72		
	부정적 정서	\bar{X}	1.52	1.52	1.53	1.48	1.47	.21	
		SD	.48	.45	.47	.49	.56		
	자유 선택 수준	\bar{X}	3.20	2.67	2.41	3.16	3.19	12.45****	4>3 >3 1>3
		SD	.94	1.53	1.26	1.15	1.17		
주의 집중 수준	\bar{X}	2.91	2.72	2.24	2.65	2.83	6.75****	1>3	
	SD	1.05	1.41	1.23	1.39	1.31			
동기 수준	\bar{X}	2.92	2.44	2.15	2.82	2.87	9.46****	4>3 5>3 1>3	
	SD	1.08	1.69	1.28	1.28	1.33			
중요성 인지수준	\bar{X}	2.45	3.44	2.55	2.34	2.87	4.04**	2>4,1	
	SD	1.19	.92	1.27	1.23	1.30			
하 집 단	긍정적 정서	\bar{X}	1.94	2.34	1.86	2.39	1.58	9.64****	2>5,3,1 4>5,3
		SD	.85	.73	.74	.76	.76		
	부정적 정서	\bar{X}	1.12	1.09	1.15	1.16	1.06	1.12	
		SD	.25	.23	.33	.28	.13		
	자유 선택 수준	\bar{X}	3.27	3.47	2.19	3.19	2.79	20.45****	4>3 1>3 2>3
		SD	1.18	.79	1.41	1.37	1.47		
주의 집중 수준	\bar{X}	3.00	3.35	2.15	2.97	2.50	16.43****	4>3 1>3 2>3	
	SD	1.29	.85	1.32	1.36	1.57			
동기 수준	\bar{X}	3.17	3.38	2.08	2.92	2.25	21.70****	4>3 1>3,5 2>3,5	
	SD	1.21	.86	1.32	1.36	1.57			
중요성 인지 수준	\bar{X}	2.85	2.67	2.90	1.76	2.54	6.65****	2>4 1>4 3>4	
	SD	1.30	1.27	1.22	1.30	1.47			

<표 IV-15> 여학생의 장소맥락별 심리상태의 다양성 유형에 있어서
 폭력행동 집단간 비교

집단	장소 맥락		집		3. 학교	5. 여가장소	F	Scheffé
	심리 상태		1. 집 (내방 제외)	2. 내방				
상 집단	긍정적 정서	\bar{X}	2.17	2.28	1.81	2.42	8.44****	1>5 4>5,3
		SD	.81	.86	.82	.62		
	부정적 정서	\bar{X}	1.56	1.35	1.36	1.54	6.26****	
		SD	.48	.47	.42	.36		
	자유 선택 수준	\bar{X}	2.65	2.70	2.11	3.00	10.29****	4>3 5>3
		SD	1.05	.85	1.10	.88		1>3
주의 집중 수준	\bar{X}	2.35	2.57	1.97	2.58	6.71****	1>3	
	SD	1.02	.80	1.03	.96			
동기 수준	\bar{X}	2.43	2.62	1.75	2.79	16.42****	4>3 5>3	
	SD	1.08	.79	1.11	1.03		1>3	
중요성 인지 수준	\bar{X}	2.08	2.41	2.01	2.21	1.29	2>4,1	
	SD	1.14	.86	1.12	1.32			
하 집단	긍정적 정서	\bar{X}	2.27	1.92	1.95	2.57	12.60****	2>5,3,1
		SD	.63	.62	.62	.66		4>5,3
	부정적 정서	\bar{X}	1.19	1.30	1.20	1.13	2.21	
		SD	.32	.35	.29	.17		
	자유 선택 수준	\bar{X}	3.19	2.93	2.40	3.15	17.93****	4>3 1>3
		SD	.75	.99	1.20	.77		2>3
주의 집중 수준	\bar{X}	2.72	2.60	2.32	2.96	5.59****	4>3 1>3	
	SD		1.14	1.06	.85		2>3	
동기 수준	\bar{X}	2.75	2.56	2.20	3.15	9.13****	4>3	
	SD	14.04	1.25	1.22	.95		1>3,5 2>3,5	
중요성 인지 수준	\bar{X}	2.24	2.87	2.71	2.63	5.55****	2>4 1>4	
	SD	1.26	1.18	1.12	1.15		3>4	

(2) 장소맥락별 심리상태수준에 있어서 폭력행동수준 상·하 집단 간 차이

남학생의 일상생활 장소의 범주별로 경험하는 심리상태가 폭력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해, 각 범주별 각 심리상태점수의 폭력수준상하집단간 차이를 t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6>에 제시하였다.

<표 IV-16>에 의하면 남학생의 경우 폭력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다양한 심리상태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일상생활장소 범주는 집이었다. 집에서 내방을 제외한 공간, 예를 들어 거실, 부엌, 안방 등

<표 IV-16> 남학생의 장소맥락별 심리상태수준에 있어서 폭력행동 집단간 차이

활동 장소	범주	심리적 상태	폭력수준		상 집단		하 집단		t
			\bar{X}	SD	\bar{X}	SD			
집	우리집 (내방을 제외한 장소)	긍정적정서	6.47	2.11	5.83	2.56	t(253)=2.09*		
		부정적정서	13.68	4.36	9.98	2.25	t(253)=8.90***		
		중요성 인지부분	2.45	1.19	2.85	1.30	t(269)=-2.54*		
	내방	부정적정서	13.72	4.04	93.85	2.04	t(94)=3.95***		
		자유선택수준	2.67	1.53	3.47	.79	t(94)=-2.17*		
		동기수준	2.44	1.69	3.38	.86	t(94)=-2.30*		
	중요성인지수준	3.44	.92	2.67	1.27	t(94)=2.99**			
학 교	학교	부정적정서	13.70	4.29	10.37	2.12	t(273)=7.39***		
	학교외 공공 학습장소	부정적정서	14.25	3.93	10.36	2.59	t(54)=3.24**		
여가	여가 장소	부정적정서	13.31	4.41	10.43	2.51	t(112)=4.43***		
		중요성 인지수준	2.34	1.23	1.76	1.30	t(112)=2.27*		
이동	이동 장소	부정적 정서	13.24	5.04	9.58	1.21	t(64)=4.48***		

에 있을 때 폭력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긍정적 정서수준과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았고 중요성 인지 수준은 낮았다. 내방에 있을 때는 폭력수준 상하집단간 심리상태의 차이가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자기 방에 있을 때 부정적 정서수준과 중요성인지수준이 높았고 선택 수준과 동기 수준이 낮았다. 학교, 학교 이외의 학습장소, 그리고 여가장소에서는 심리상태 중 부정적 정서 수준에서만 상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차이를 보였고 그 외의 심리상태는 상하집단간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학생에 대한 일상생활 장소맥락별 심리상태의 폭력행동 상하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7>에 제시하였다.

<표 IV-17>에 의하면 여학생의 경우 폭력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다양한 심리상태에서 차이를 보이는 일상생활장소범주는 집, 학교, 그리고 학습과 관련된 학교이외의 공공장소였다. 집에서 내방을 제외한 공간에 있을 때 폭력수준이 높은 여학생 집단은 낮은 여학생집단에 비해 부정적 정서가 강했고, 선택수준, 주의집중수준, 동기수준이 낮았다. 학교에 있을 때는 폭력수준이 높은 여학생 집단이 낮은 여학생집단에 비해 부정적 정서가 강했고 동기수준과 중요성인지 수준이 낮았다. 학교를 제외한 학습 관련 공공장소에서는 폭력수준이 높은 여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여학생보다 낮은 긍정적 정서와 높은 부정적 정서를 보이고 동기수준이나 중요성인지수준이 낮았다.

여가 장소와 이동장소에서 경험하는 심리상태는 부정적 정서경험을 제외하고는 폭력행동 상하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이 두 범주에서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여학생들이 낮은 여학생들에 비해 부정적 정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자기 방에서 경험하는 심리상태의 폭력수준 상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분석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는데 폭력수준이 높은 여학생집단이 낮은 여학생 집단에 비해 긍정적 정서경험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여학생의 장소맥락별 심리상태수준에 있어서 폭력행동 집단간 차이

활동 장소 범주		폭력수준 심리적 상태	상 집 단		하 집 단		t
			\bar{X}	SD	\bar{X}	SD	
집	우리집 (내방을 제외한 장소)	부정적정서	14.04	4.31	10.75	2.88	t(317)=8.07***
		자유선택수준	2.65	1.05	3.19	.75	t(323)=5.43***
		주의집중수준	2.35	1.02	2.72	.99	t(324)=-3.32**
		동기수준	2.43	1.08	2.75	1.04	t(324)=-2.73**
	내방	긍정적정서	6.84	2.59	5.76	1.87	t(80)=2.13*
학교 및 학업 관련 공공 장소	학교	부정적 정서	12.29	3.87	10.91	2.71	t(262)=3.37**
		동기수준	1.77	1.16	2.16	1.26	t(263)=3.37**
		중요성 인지수준	1.93	1.11	2.65	1.17	t(262)=-5.13*
	학교 외의 공공학습 장소	긍정적정서	4.97	1.73	6.21	1.41	t(54)=-2.86**
		부정적정서	12.19	3.26	9.92	1.91	t(54)=3.27*
		동기수준	1.64	.90	2.40	.96	t(56)=-3.12**
		중요성 인지수준	2.36	1.08	3.04	.74	t(56)=-2.83**
여가 장소	여가 장소	부정적정서	13.84	3.25	10.16	1.52	t(31)=2.99**
이동 장소	이동 장소	부정적정서	14.20	3.27	10.77	3.14	t(31)=-.12

2) 사회적 맥락별 주관적 경험에 있어서 폭력행동 수준에 따른 차이

(1) 사회적 맥락별 심리상태수준의 다양성 유형에 있어서 폭력행동 수준에 따른 차이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맥락의 변화에 따른 심리상태수준의 다양성 유형이 폭력행동 상집단과 하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폭

력 상하 집단별로 심리상태수준점수를 사회적 맥락변인별로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를 <표 IV-18>에 제시하였다.

<표 IV-18>에 의하면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남학생 집단과 낮은 남학생 집단 모두 긍정적 정서수준과 중요성 인지수준이 사회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서 다르지 않았다. 자유선택수준, 주의집중수준, 동기수준은 급우와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경우보다 혼자 있거나 가족과 함께 있거나, 친구와 함께 있는 경우에 더 높았다.

폭력행동수준 상집단과 하집단의 차이는 부정적 정서의 사회적 맥락에 따른 다양성 유형에서 나타났는데, 상집단 남학생의 경우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있는 맥락과 급우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있는 맥락에서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서 그들과 상호작용 없이 혼자있는 경우와 부모와 함께 있는 경우에서 보다 부정적 정서를 강하게 경험했다. 반면에 폭력행동수준이 낮은 남학생집단은 사회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부정적 정서수준이 다르지 않았다. 또한 폭력행동 상집단 남학생들은 혼자있는 맥락 중에서도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이 혼자있는 맥락이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서 혼자있는 맥락보다 자유선택수준이나 동기수준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두 맥락의 심리적 경험이 다름을 보여주는 반면, 폭력행동하집단 남학생들은 이 두 맥락의 심리적 경험이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학생에 대한 사회적 맥락 변화에 따른 심리상태수준의 다양성 유형이 폭력행동 상하집단 간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9>에 제시하였다.

<표 IV-19>에 의하면 폭력행동 상하집단 모두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 급우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보다 긍정적 정서경험이 강했다. 또한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의 자유선택수준이나 동기수준이 급우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의 수준보다 높았다.

<표 IV-18> 남학생의 사회적 맥락별 심리상태수준의 다양성에 있어서 폭력행동 집단간 차이

집단	사회적 맥락 심리 상태		혼자		가족		친구	급우		F	Scheffé
			1.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2.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서 혼자	3. 부모	4. 형제	5. 친구	6. 급우	7. 급우와 선생님		
상집단	긍정적 정서	\bar{X}	1.99	1.97	2.37	2.22	2.24	1.84	1.76	15.33***	2>1.5 3>1.6,5 4>1.6,5
		SD	.80	.75	.82	.76	.85	.91	.77		
	부정적 정서	\bar{X}	1.55	1.61	1.49	1.58	1.49	1.31	1.27	4.26***	
		SD	.48	.50	.50	.46	.37	.34	.37		
	자유 선택수준	\bar{X}	2.70	2.41	2.57	3.09	2.80	2.10	1.96	13.19****	5>1 4>1 2>1 3>1.6
		SD	.90	1.09	.98	.95	.98	1.07	1.09		
주의집중 수준	\bar{X}	2.31	2.11	2.39	2.69	2.54	1.98	1.87	9.89***	2>1 4>1 3>1.6	
	SD	.90	1.00	.88	1.11	1.00	.99	1.03			
동기수준	\bar{X}	2.38	2.03	2.53	2.63	2.63	1.76	1.67	19.90****	6>1 5>1 2>1 3>1.6 4>1.6	
	SD	.97	1.07	.96	1.17	1.07	1.07	1.07			
중요성 인지수준	\bar{X}	2.07	2.18	1.99	2.43	2.22	1.96	2.00	1.71		
	SD	1.00	1.09	.99	1.24	1.26	1.05	1.18			
하집단	긍정적 정서	\bar{X}	2.17	2.11	2.30	2.24	2.35	2.05	1.84	21.04****	5>1 2>1.6,5 4>1.6,5 3>1.6,5
		SD	.69	.60	.62	.68	.71	.62	.60		
	부정적 정서	\bar{X}	1.21	1.32	1.19	1.13	1.28	1.16	1.19	.37	
		SD	.33	.32	.35	.22	.34	.23	.29		
	자유 선택수준	\bar{X}	3.24	2.93	3.06	3.14	3.09	2.73	2.14	8.88****	5>1 4>1 3>1.6
		SD	.72	.73	.89	1.01	1.00	1.13	1.19		
주의집중 수준	\bar{X}	2.66	2.50	2.64	2.95	2.70	2.36	2.30	2.39*		
	SD	.93	1.02	1.10	1.02	1.11	1.06	1.03			
동기수준	\bar{X}	2.84	2.39	2.75	2.86	2.96	2.31	2.04	9.37****	2>1 5>6.1 4>6.1 3>6.1	
	SD	1.02	1.06	1.09	1.28	1.07	1.22	1.18			
중요성 인지수준	\bar{X}	2.42	2.68	2.25	2.00	2.70	2.53	2.81	9.74****	5>4 1>4.3	
	SD	1.26	1.22	1.20	1.18	1.26	1.21	1.05			

<표 IV-19> 여학생의 사회적 맥락별 심리상태수준의 다양성에 있어서
 폭력행동 집단간 차이

집단	사회적 맥락 심리 상태		혼자		가족		친구	급우		F	Scheffé
			1.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2.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서 혼자	3. 부모	4. 형제	5. 친구	6. 급우	7. 급우와 선생님		
상 집단	긍정적 정서	\bar{X}	2.02	1.95	2.29	2.03	2.16	2.26	1.94	2.10	
		SD	.57	.70	1.01	.58	.75	.78	.55		
	부정적 정서	\bar{X}	1.64	1.41	1.32	1.42	1.53	1.74	1.80	6.34****	1>3,2 7>3,2
		SD	.48	.44	.43	.48	.55	.43	.40		
	자유 선택수준	\bar{X}	3.06	2.67	3.19	3.23	3.23	2.69	2.10	6.74****	1>7 3>7 4>7 5>7,2
		SD	1.08	1.18	1.37	.92	1.04	.96	1.76		
주의집중 수준	\bar{X}	2.78	2.48	2.91	2.91	2.77	2.62	1.95	3.47**	1>7 3>7	
	SD	1.13	1.15	1.42	1.11	1.34	.96	1.12			
동기수준	\bar{X}	2.74	2.34	3.06	2.73	3.00	2.62	1.90	6.39****	1>7 5>7,2 3>7,2	
	SD	1.22	1.19	1.46	1.14	1.30	.96	1.20			
중요성 인지수준	\bar{X}	2.85	2.59	2.28	2.18	2.51	2.62	2.31	2.00		
	SD	1.02	1.22	1.46	1.14	1.30	.96	1.20			
하 집단	긍정적 정서	\bar{X}	2.09	1.97	2.04	2.35	2.17	1.80	1.89	2.18*	
		SD	.83	.85	.83	.67	.86	.80	.69		
	부정적 정서	\bar{X}	1.15	1.04	1.09	1.04	1.17	1.15	1.13	1.63	
		SD	.31	.09	.21	.09	.4	.30	.31		
	자유 선택수준	\bar{X}	3.15	3.50	3.45	3.24	3.28	2.32	1.86	18.01****	1>7,6 4>7 5>7,6 3>7,6 2>7,6
		SD	1.29	.85	.81	.97	1.24	1.51	1.26		
주의집중 수준	\bar{X}	3.03	3.02	3.15	3.35	3.02	2.11	1.97	12.26****	5>7,6 2>7,6 1>7,6 3>7,6 4>7,6	
	SD	1.29	1.17	.92	1.61	1.31	1.39	1.15			
동기수준	\bar{X}	3.05	3.07	3.28	3.24	3.09	2.02	1.91	9.13****	1>7,6 2>7,6 5>7,6 4>7,6 3>7,6	
	SD	1.31	1.15	.96	.97	1.33	1.44	1.15			
중요성 인지수준	\bar{X}	2.84	2.57	2.95	1.82	2.43	2.67	2.91	2.56*		
	SD	1.32	1.39	1.18	1.13	1.50	1.40	1.09			

한편 폭력행동수준 상·하집단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심리상태는 부정적 정서와 주의집중수준이었는데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여학생 집단은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건 없건 혼자있을 때의 부정적 정서가 급우들 혹은 급우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보다 강했으나 폭력행동수준이 낮은 여학생집단은 사회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부정적 정서수준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폭력행동 상·하집단의 여학생들은 형제와 함께 있을 때의 주의집중수준이 급우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높았으나, 하·하집단 여학생들은 사회적 맥락의 변화에 따른 주의집중수준의 다양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2) 사회적 맥락별 심리상태수준에 있어서 폭력행동수준 상·하 집단간 차이

각 사회적 맥락에서 경험하는 심리상태수준에 있어서 폭력행동수준 상·하 집단차를 보이는지, 보인다면 어느 맥락에서 가장 차이가 큰지를 살펴보기위해서 각 맥락에서의 심리상태 수준점수를 폭력행동 집단에 따라 t-test 하였으며, 남학생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20>에 제시하였다.

<표 IV-20>에 의하면 폭력행동수준이 낮은 집단의 남학생 집단에서 보고된 사례가 1 사례이어서 분석이 불가능했던 이성친구와 함께 있는 맥락을 제외하고 모든 맥락에서 폭력행동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서 혼자 보내는 맥락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심리상태에서 폭력행동수준 상·하 집단간 차이를 보임으로써 9개 유형의 사회적 맥락 중 심리적 상태에 있어서 폭력점수수준 집단간 변별력이 가장 큰 맥락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상태에 있어서는 부정적 정서수준이 거의 모든 맥락에서 폭력행동수준 상·하집단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20> 남학생의 사회적 맥락 범주별 심리상태 수준에 있어서 폭력행동 상·하 집단간 차이

사회적 맥락 범주 5	사회적 맥락 범주9	폭력 행동 수준 심리적 상태	상 집단		하 집단		t
			\bar{X}	SD	\bar{X}	SD	
1. 혼자	1.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부정적정서	14.79	4.29	10.37	2.83	t(199)=8.42***
	2.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서 혼자	부정적 정서	12.66	3.98	9.32	.83	t(170)=8.96***
		자유선택수준	2.67	1.18	3.50	.85	t(181)=-5.11***
		주의집중수준	2.48	1.15	3.02	1.17	t(181)=-2.71**
	동기수준	2.34	1.19	3.07	1.15	t(181)=-3.58***	
2. 가족	3. 부모	부정적정서	11.90	3.84	9.79	1.88	t(85)=3.33**
		중요성 인지수준	2.28	1.46	2.95	.77	t(91)=-2.44**
	4. 형제	부정적정서	12.75	4.36	9.35	3.07	t(35)=3.42**
3. 친구	5. 동성 친구	부정적정서	13.79	4.74	10.60		t(111)=4.35***
	6. 이성 친구	하집단의 이성친구 맥락에 해당되는 사례수가 1로 분석에서 제외					
4. 급우	7. 급우들	부정적 정서	15.62	3.84	10.38	2.74	t(77)=4.69***
		부정적정서	16.24	3.57	10.21	2.76	t(124)=8.92***
	8. 급우들 과선생님	중요성 인지수준	2.31	1.20	2.91	1.09	t(129)=-2.83**
5. 기타	9. 기타	하집단의 기타맥락에 해당되는 사례수가 5로 분석에서 제외					

남학생에서 사회적 맥락별로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에 있어서 폭력행동수준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의 심리적 상태는 부정적 정서상태에 있어서만 폭력행동수준 상하집단간 차이를 보였는데 폭력수준 상집단이 하집단 보다 부정적정서가 강했다. 그 외 다른 심리상태를 긍정적 정서, 상태와 중요성 인지수준

을 제외하고 측정된 모든 심리상태에서 폭력행동수준 상하집단간 부정적 정서가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남학생들이 낮은 남학생들에 비해 강하며, 자유선택수준·주의집중수준, 동기수준이 낮았다.

부모와 함께 있는 경우는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남학생들이 낮은 남학생들에 비해 부정적정서가 강하고, 중요성인지수준이 낮았다. 형제와 함께 있을 경우, 동성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경우, 그리고 급우들과 함께 있는 경우에 폭력행동수준 상집단 남학생들이 하집단 남학생들에 비해 부정적 정서가 강하다. 급우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경우 폭력행동수준 상집단 남학생은 하집단 남학생에 비해 부정적 정서가 가하고 중요성인지수준이 낮았다. 이성친구와 함께 있는 맥락과 기타 사회적 맥락에서도 폭력행동수준상하집단의 사례가 t값을 산출하기에 불충분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다음은 여학생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학생들의 각 사회적 맥락에서의 심리상태수준에 있어서 폭력행동수준상하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표 IV-21>에 제시하였다.

여학생들은 형제와 함께 있는 경우, 동성친구와 함께 있는 경우, 이성친구와 함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회적 맥락들에서는 다양한 심리상태에 있어서 폭력행동수준 상하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급우들과 함께 있는 맥락에서는 긍정적정서 상태를 제외한 모든 심리상태에 있어서 폭력행동수준상하집단간 차이를 보임으로써 9개 유형의 모든 사회적 맥락 중에서 가장 폭력행동수준 상하집단간 심리상태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다양한 심리상태 중 부정적 정서가 거의 모든 맥락에서 폭력행동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심리상태였다.

각 사회적 맥락범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맥락에서는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정적 정서가 강하고, 주의집중수준과 중요성인지수준이 낮았다. 부모와 함

<표 IV-21> 여학생의 사회적 맥락별 심리상태수준에 있어서
 폭력행동수준 상·하집단간 차이

사회적 맥락 범주 5	맥락 범주 9	폭력 행동 수준 심리적 상태	상 집단		하 집단		t
			\bar{X}	SD	\bar{X}	SD	
1. 혼자	1.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부정적정서	13.98	4.28	10.92	3.00	t(133)=4.72***
		주의집중 수준	2.31	.90	2.66	.93	t(133)=-2.21*
		동기수준	2.38	.97	2.84	1.02	t(133)=-2.67**
	2.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서 혼자	부정적 정서	14.52	4.54	11.91	2.90	t(106)=3.64***
		주의집중 수준	2.11	1.00	2.50	1.02	t(107)=-1.99*
중요성인지수준		2.18	1.09	2.68	1.22	t(107)=-2.23*	
2.가족	3.부모	부정적정서	13.45	4.47	10.68	3.16	t(148)=4.37***
		자유선택 수준	2.57	.98	3.06	.89	t(154)=-3.28**
	4.형제	부정적정서	14.20	4.14	10.19	1.94	t(54)=4.91***
3.친구	5.동성 친구	모든 심리적 상태수준에 있어서 상,하집단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음					
	6.이성 친구	하집단의 이성친구 맥락에 해당되는 사례수가 1로 분석에서 제외					
4.급우	7.급우들	부정적 정서	11.80	3.04	10.40	2.09	t(102)=2.70**
		자유선택 수준	2.10	1.07	2.73	1.13	t(102)=-2.89*
		주의집중 수준	1.98	.99	2.36	1.06	t(102)=-1.90*
		동기수준	1.76	1.07	2.31	1.22	t(102)=-2.45*
		중요성인지 수준	1.96	1.05	2.53	1.22	t(101)=-2.55**
	8.급우들 과선생님	주의집중 수준	1.87	1.03	2.30	1.03	t(167)=-2.68**
		동기수준	1.67	1.07	2.04	1.18	t(167)=-2.14*
중요성 인지수준		2.00	1.18	2.81	1.05	t(167)=-4.74***	
5.기타	9.기타	상집단 사례수 9, 하집단 사례수 6으로 분석에서 제외					

게 있는 맥락에서는 폭력행동 수준 상집단 여학생이 하집단 여학생에 비해 부정적정서가 강하고 자유선택수준이 낮았다. 형제와 함께 있는 맥락에서는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부정적정서가 강했다.

동성친구와 함께 있는 맥락 내에서 폭력행동수준 상하집단간 의미 있는 심리상태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급우들과 함께 있는 맥락에서는 긍정적정서를 제외하고 모든 정서상태수준에서 폭력행동수준집단간 차이를 보였는데,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집단 여학생들이 낮은 집단 여학생에 비해 부정적정서가 강하고 자유선택수준, 주의집중수준, 동기수준, 중요성인지수준이 낮았다. 이성친구와 함께 있는 맥락과 기타 맥락에서는 폭력행동상하집단의 사례수가 적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활동맥락별 주관적 경험에 있어서 폭력행동 수준에 따른 차이

(1) 활동맥락별 심리상태수준의 다양성 유형에 있어서 폭력행동수준에 따른 차이

남학생의 경우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일상생활 중 경험하게 되는 심리상태의 활동맥락에 따른 다양성 유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폭력행동수준 상하집단 별로 각 심리상태수준점수를 활동 맥락에 따라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를 <표 IV-22>에 제시하였다.

<표 IV-22>에 의하면, 폭력수준 상집단과 하집단에게 있어서 각 활동맥락에 따른 심리상태수준의 다양성 유형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두 집단 모두 거의 대부분의 여가활동 중 경험하는 수준보다 높았다. 부정적 정서수준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자유선택수준, 주의집중수준, 동기수준은 공부를 하는 동안 보다는 여가 중이나 생활 유지 및 기타활동을 하는 중에 더 높았다.

<표 IV-22> 남학생의 활동맥락별 심리상태 수준의 다양성에 있어서 폭력행동집단간 차이

집단	장소 맥락 심리상태		수업과 공부		여가						생활유지 및 기타		F	Scheffé
			1. 수업과 공부	2. 적극적인 여가	3. PC 게임	4. 다른 사람과 대화 및 상호 작용	5. 소극적 여가	6. T.V 보기	7. 생활 유지	8. 이동 및 다음 활동 준비				
폭력수준상 집단	긍정적 정서	\bar{X}	1.77	2.32	2.42	2.09	2.19	2.52	1.91	1.83	10.26****	2>1, 3>1,8,7 6>1,8,7		
		SD	.55	.75	.58	.88	.56	.68	.71	.73				
	부정적 정서	\bar{X}	1.58	1.45	1.49	1.57	1.52	1.48	1.45	1.50	.65			
		SD	.48	.43	.51	.59	.52	.45	.45	.51				
	자유선택 수준	\bar{X}	2.10	2.97	3.48	2.84	3.24	3.33	3.08	3.15	12.19****	4>1, 2>1, 7>1, 8>1, 5>1, 6>1, 3>1		
		SD	1.22	1.14	.87	1.36	.94	.75	1.13	1.06				
주의집중 수준	\bar{X}	2.04	2.41	3.23	2.42	2.85	3.13	2.74	2.80	7.79****	7>1, 6>1, 3>1			
	SD	1.08	1.037	1.06	1.44	1.03	.90	1.30	1.21					
동기 수준	\bar{X}	1.74	2.68	3.31	2.66	2.76	3.00	2.86	2.83	12.35****	4>1, 2>1, 5>1, 8>1, 7>1, 6>1, 3>1			
	SD	1.08	1.27	.93	1.40	2.76	1.00	1.30	1.34					
중요성 인지 수준	\bar{X}	2.90	2.62	2.67	2.10	1.94	1.90	2.82	3.05	8.11**	7>6, 1>6,5,4, 8>6,5,4			
	SD	1.09	1.18	1.00	1.52	1.17	1.14	1.19	1.12					
폭력수준하 집단	긍정적 정서	\bar{X}	1.72	2.42	2.54	2.17	2.23	2.60	1.57	1.55	21.01****	5>8,7, 2>8,7,1, 3>8,7,1, 6>8,7,1		
		SD	.66	.86	.67	.88	.86	.53	.62	.69				
	부정적 정서	\bar{X}	1.15	1.13	1.08	1.28	1.15	1.13	1.09	1.08	1.54			
		SD	.34	.26	.17	.34	.33	.28	.25	.21				
	자유선택 수준	\bar{X}	1.82	3.23	3.86	3.15	3.00	3.30	3.05	2.80	21.60****	8>1, 5>1, 4>1, 7>1, 2>1, 6>1, 3>1,8		
		SD	1.29	1.19	.40	1.35	1.41	.81	1.23	1.41				
주의집중 수준	\bar{X}	1.94	2.97	3.64	2.90	2.76	3.00	2.93	2.47	13.57****	7>1, 2>1, 6>1, 3>1,8			
	SD	1.16	1.43	.59	1.55	1.44	1.01	1.17	1.44					
동기 수준	\bar{X}	1.74	3.13	3.63	2.90	2.82	3.22	3.15	2.45	20.38****	5>1, 4>1, 2>1, 7>1, 6>1, 3>1,8			
	SD	1.15	1.25	.59	1.52	1.47	.87	1.22	1.50					
중요성 인지 수준	\bar{X}	3.06	2.80	2.16	2.05	2.67	2.09	3.42	2.61	8.48****	1>6,3, 7>4,6,3			
	SD	1.11	1.37	1.29	1.57	1.38	1.28	.83	1.40					

그러나 폭력수준 상집단과 하집단이 중요성인지수준에 대한 활동 맥락적 다양성 위협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집단은 공부를 하든, 여가중이든, 아니면 생활유지활동 중이든 중요성인지수준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폭력행동수준이 낮은 집단은 공부와 생활유지 활동이 TV를 보거나 소극적 여가 활동 보다 중요한 활동이라고 인지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심리상태의 활동 맥락에 따른 다양성 유형이 폭력행동

<표 IV-23> 여학생의 활동맥락별 심리상태 수준의 다양성에 있어서 폭력행동집단간 차이

사회적 맥락	심리상태	공부			여가				생활유지 및 기타		F	Scheffé	
		1. 학교 수업	2. 학원 (과외) 수업	3. 개별 공부	4. 적극적 여가	5. PC 게임	6. 타인과의 대화 및 상호작용	7. 소극적 여가	8. TV 보기	9. 생활유지			10. 이동 및 다음 활동 준비
공경적 정서	\bar{X}	1.78	1.77	1.68	2.36	2.52	2.22	2.35	2.51	1.86	1.75	39.59****	6>3,10,2,1,9 7>3,10,2,1,9 4>3,10,2,1,9 8>3,10,2,1,9 5>3,10,2,1,9
	SD	.69	.60	.54	.75	.63	.86	.73	.60	.71	.69		
부경적 정서	\bar{X}	1.25	1.25	1.39	1.30	1.26	1.43	1.43	1.34	1.29	1.33	3.90***	
	SD	.38	.40	.46	.37	.40	.47	.49	.42	.40	.43		
자유선택 수준	\bar{X}	1.94	2.01	2.25	3.01	3.67	2.90	3.10	3.11	2.92	2.66	36.36****	10>1,2, 6>1,2,3 9>1,2,3, 4>1,2,3, 7>1,2,3, 8>1,2,3, 5>1,2,3,10,6,9,4,7,8
	SD	1.13	1.16	1.27	1.09	.67	1.22	1.06	.79	1.13	1.20		
주의집중 수준	\bar{X}	2.04	2.05	2.07	2.72	3.41	2.52	2.72	2.78	2.63	2.34	20.12****	9>1,2,3, 4>1,3 7>3,1,2, 8>1,2,3 5>1,2,3,10,6,9,4,7,8
	SD	1.05	1.07	1.16	1.23	.85	1.27	1.15	1.15	1.17	1.18		
흥기 수준	\bar{X}	1.78	1.80	1.69	2.84	3.44	2.65	2.75	2.92	2.76	2.31	38.19****	10>3,1, 6>3,1,2 7>3,1,2, 9>3,1,2,10 4>3,1,2, 8>3,1,2,10 5>3,1,2,10,6,7,9
	SD	1.07	1.11	1.13	1.21	.79	1.31	1.13	.90	1.25	1.28		
중요성 인지 수준	\bar{X}	2.69	2.91	2.90	2.71	2.40	2.09	2.13	1.89	2.72	2.57	15.56****	10>8, 1>8,6,7 4>8 9>8,6,7 3>8,6,7, 2>8,6,7.
	SD	1.12	1.06	1.13	1.13	1.20	1.38	1.28	1.14	1.22	1.15		

수준 상집단과 하집단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 PC게임활동과 적극적 여가 활동 중의 심리상태를 보고한 사례가 5사례 미만이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결과를 <표 IV-23>에 제시하였다.

<표 IV-23>에 의하면 주의집중 수준과 중요성인지 수준의 활동 맥락에 따른 다양성 유형에 있어서 폭력행동 상집단과 하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여학생들은 여가활동 중의 느끼는 주의 집중수준이 공부나 다른 생활 유지활동 중에 느끼는 주의집중수준에 비해 의미있게 높았으나, 폭력행동수준이 낮은 여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주의집중수준이 의미있게 다르지 않았다. 반면, 중요성인지 수준에 있어서는 폭력행동 상집단 여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폭력행동하집단 여학생들은 공부나 생활유지활동 등 여가활동보다 더 중요한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의 경우와 일치된 결과이다.

(2) 활동맥락별 심리상태수준에 있어서 폭력행동수준 상·하 집단 간 차이

남학생의 폭력행동수준에 따른 각 활동범주별 심리상태수준점수에 대한 t-test결과는 <표 IV-24>, 여학생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25>에 제시하였다.

<표 IV-24>에 의하면 모든 활동 범주에서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남학생은 낮은 남학생집단에 비해 부정적 정서 표현이 강했다. 긍정적 정서는 부정적 정서만큼 폭력행동 상하집단을 구분하는데 민감한 변인은 아니었지만 흥미롭게도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남학생들이 낮은 남학생집단에 비해 개별공부활동중이나 생활유지활동 중에 의미있게 높은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하였다. 선택수준은 학교수업, pc게임, 활동 중 다르게 나타났는데 폭력 상집단 남학생이 하집단 남학생에 비해 학교수업 중에 더 높은 자유선택수준을 경험했고, pc게임중에는 자유선택수준이 오히려 더 낮았

<표 IV-24> 남학생의 활동맥락별 심리상태의 폭력행동 집단간 차이

활동 맥락	심리적 상태	폭력 수준	상 집단		하 집단		t
			\bar{X}	SD	\bar{X}	SD	
공부	학교 수업	부정적정서	14.46	3.90	10.29	3.12	t(98)=5.45***
		선택수준	2.26	1.04	1.74	1.29	t(98)=2.05*
	학원 수업	부정적정서	16.17	3.60	10.38	2.69	t(44)=4.72***
		중요성 인지수준	2.17	4.17	3.08	1.00	t(44)=-2.04*
	개별 공부	긍정적정서	5.21	1.57	4.26	1.45	t(74)=2.32*
		부정적정서	13.82	4.55	10.26	3.69	t(73)=3.41**
여가	적극적 여가	부정적정서	13.03	3.87	10.20	2.38	t(61)=3.53***
	PC game	부정적정서	13.40	4.56	9.73	1.56	t(101)=5.27***
		자유선택 수준	3.48	.88	3.86	.40	t(102)=-2.75**
		주의집중 수준	3.23	1.06	3.64	.59	t(102)=-2.41*
		동기수준	3.31	.93	3.63	.59	t(102)=-2.01*
		중요성 인지수준	2.67	1.00	2.16	1.29	t(102)=2.21*
	사회화	부정적정서	14.12	5.31	11.55	3.05	t(68)=2.53*
	소극적여가	부정적정서	13.69	4.67	10.36	2.99	t(63)=3.41**
		중요성인지 수준	1.94	1.17	2.67	1.38	t(64)=-2.30*
	T.V 보기	부정적정서	13.29	4.04	10.20	2.48	t(100)=4.74***
생활 유지 및 기타	생활 유지 활동	긍정적정서	5.74	2.12	4.71	1.86	t(137)=2.97**
		부정적정서	13.09	4.06	9.84	2.21	t(136)=6.02***
		중요성 인지수준	2.82	1.20	3.42	.84	t(148)=-3.61***
	이동·활동 준비	부정적정서	13.46	4.59	9.69	1.91	t(84)=4.69***

<표 IV-25> 여학생의 활동맥락별 심리상태의 폭력행동 집단간 차이

활동 맥락	심리적 상태	폭력 수준	상 집단		하 집단		t
			\bar{X}	SD	\bar{X}	SD	
공부	학교 수업	자유선택 수준	1.72	.93	2.13	1.09	t(107)=-2.05*
		주의집중 수준	1.81	.92	2.27	1.06	t(107)=-2.40*
		동기수준	1.38	.90	2.00	1.10	t(107)=-3.13**
		중요성 인지수준	1.89	1.03	2.87	.93	t(107)=-5.19***
	학원 수업	부정적정서	12.76	4.58	10.00	2.33	t(30)=2.19*
		주의집중 수준	1.83	1.15	2.63	1.03	t(32)=-2.11*
		동기수준	1.44	.92	2.63	1.20	t(32)=-3.23**
	개별 공부	부정적정서	13.15	4.32	10.95	2.55	t(68)=2.56*
		자유선택수준	1.91	1.01	2.84	.99	t(68)=-3.89***
		주의집중 수준	1.70	.95	2.57	.96	t(68)=-3.81***
동기수준		1.42	1.00	2.00	1.05	t(68)=-2.34*	
중요성 인지수준		2.36	1.08	3.08	1.09	t(68)=-2.76**	
여가	사회화	부정적정서	13.39	3.45	10.79	2.19	t(58)=3.57**
	소극적여가	부정적정서	14.36	4.44	11.32	3.75	t(81)=2.87**
	T.V 보기	부정적정서	13.97	4.08	10.49	2.48	t(122)=5.71***
		자유선택 수준	2.74	.84	3.11	.64	t(124)=-2.80**
생활유지 및 기타	생활 유지 활동	긍정적정서	5.39	2.47	6.19	1.84	t(172)=-2.37**
		부정적정서	12.18	3.83	10.98	2.96	t(171)=2.27*
		자유선택 수준	2.48	1.11	3.01	1.01	t(175)=-3.33**
		주의집중 수준	2.23	1.06	2.67	1.07	t(176)=-2.71**
		동기수준	2.33	1.18	2.78	1.19	t(176)=-2.52*
		중요성 인지수준	2.19	1.14	2.65	1.28	t(176)=-2.53*
	이동·활동 준비	부정적정서	13.91	4.09	10.82	2.58	t(90)=4.44***

다. 중요성인지수준은 학원(과외)수업, pc게임, 소극적 여가, 생활유지활동 중에 차이를 보였는데 pc게임 중에는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중요성인지도가 높았으나 그 외의 활동에서는 중요성 인지도가 낮았다.

그외에 주의집중수준과 동기수준에서 두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 활동 맥락은 pc game이었는데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주의집중정도나 동기 유발 정도가 낮았다. 요약하면 모든 활동 범주에서 폭력행동수준 상하집단간 심리적 상태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부정적 정서는 폭력행동수준 상집단이 일관성있게 높게 나타나고 활동맥락은 pc게임 맥락이었다.

여학생의 폭력행동수준에 따른 각 활동 범주별 심리상태수준 점수에 대한 t-test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5>에 의하면 폭력행동수준 하집단의 여학생의 경우 pc게임을 하고 있는 사례가 단 한 번도 표집되지 않아서 t-test를 실행할 수 없어 pc 게임 범주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외 9개 범주 모두에서 폭력점수 상하집단 심리적 상태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여학생집단이 낮은 여학생집단에 비해 거의 모든 활동범주에서 더 높은 부정적 정서 상태를 경험했다. 단 남학생과 달리 학교수업 중에는 폭력행동 상하집단 간에 부정적 정서 수준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긍정적 정서수준은 생활 유지활동범주에서만 폭력행동 상하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긍정적 정서수준이 낮았다.

자유선택수준에 있어서 폭력행동수준 상하집단간 차이를 보이는 활동 맥락은 학교수업, 개별공부, TV보기, 생활유지활동이었다. 이 세가지 활동 범주에서 폭력행동수준이 높은 여학생 집단이 낮은 여학생집단에 비해 자유선택수준을 낮게 인지하였다. 주의 집중 수준, 동기수준, 중요성 인지수준은 모든 세 가지 유형의 공부활동과 생활유지활동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역시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주의집중수준, 동기수준, 중요성인지수준이

낮았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도 여가활동보다는 공부활동맥락과 생활 유지활동맥락이 폭력성점수 상하집단인 심리상태를 잘 변별하는 맥락임을 보여준다.

V. 논의와 결론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상생활경험표집(ESM)의 대상이 되었던 연구대상수가 적어서 일상생활 맥락을 상세하게 분류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예로 여학생의 경우 PC게임을 하는 맥락이나 남·녀 모두 이성 친구를 만나는 맥락이 표집된 사례가 적어 남녀별 일상생활 경험의 폭력행동 수준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 제외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폭력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하루 시간중 학교수업에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의미있는 차이로 적게 산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폭력행동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에 비해 학교 수업 중에 소리신호가 울린 경우에 응답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에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이와같이 ESM 방법은 질문지 법과 같은 다른 측정방법에 비해 연구대상자의 협조를 많이 필요로 하는 방법이므로 위에서 제시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과 분석의 단위가 연구대상 개개인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이므로 연구대상 사례수가 적음에도 폭력행동 수준과 관련된 일상생활경험의 특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 순으로 결과를 요약하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초기 폭력행동의 내용과 수준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이 나타내는 폭력행동의 유형은 폭력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폭력행동척도의 요인분석 결과에 의해 신체폭력(예, 남의 뺨을 때리다, 남을 녹초가 될 때까지 심하게 때리다), 심각한 대물폭력(예, 오토바이 폭주를 하다, 장난삼아 불을 지르다),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예, 물건을 던지거나 걷어차다, 남에게 욕설을 하다)으로 분류되었다. 대물폭력이 그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독립된 두 요인으로 나뉘었으며, 언어폭력이 사소한 수준의 대물폭력과 같은 요

인으로 묶었다는 점이 폭력행동을 일반적으로 신체폭력, 언어폭력, 대물폭력으로 분류하는 선행연구 결과(곽금주, 윤진, 문은영, 1993; 김재엽, 이서원, 1999; 심웅철, 1989)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폭력행동에 대한 분류는 주로 폭력행동을 측정하는 척도점수를 통계 분석 절차(예, 요인분석)를 적용해 제시된 경험적 분류라기보다 행동의 특성에 따라서 논리적 준거에 의해 분류된 유형임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분류 방법이 다름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특히 일반적 분류에서 그 행동 특성이 서로 다른 언어폭력과 대물폭력이 본 연구에서요인분석 결과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요인이라는 한 유형으로 묶인 것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할 때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가하지는 않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문을 세계 닫는 등의 행동이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 해 볼 때, 이 두 가지 유형의 폭력행동은 함께 수반되어 나타나는 행동이므로 한 요인으로 묶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학교 청소년들의 보편적인 폭력행동 유형은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이었다. 이 유형을 측정하는 11개의 모든 문항에 대해 연구 대상 청소년들이 한 학기에 한 두 번 이상씩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그 수준에 있어서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 초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폭력행동유형은 남·녀 모두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문을 세계 닫거나, 남에게 큰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정도의 행동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체폭력행동과 심각한 대물폭력행동점수 분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평균값에 비해서 표준편차가 1~5 배 정도 크다. 이는 이 두 가지 유형의 폭력행동 수준에서 개인차가 큼을 의미한다. 개인차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폭력행동의 경우 남학생은 83%, 여학생은 97%가 지난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행사해 본적이 없다

고 하였으며, 심각한 대물폭력행동의 경우는 남학생의 80%, 여학생의 99%가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의 대부분이 한 학기에 한 번도 신체폭력이나 심각한 대물폭력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경험 여부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에서 나타나는 낮은 반응률을 감안하더라도 매스컴을 통해 자주 보도되어 청소년 전체의 문제인 것으로 확대 해석되는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폭력행동, 예를 들면 친구구타, 폭력조직 결성, 오토바이 폭주등의 폭력행동은 일반 중학교 재학생인 초기 청소년의 경우 일부 소수, 구체적으로 여학생의 1-3%, 남학생의 17-20%에게서 한 학기에 한 두 번 정도로 나타나는 수준임을 보여준다.

2. 청소년 초기 일상생활의 객관적, 주관적 경험 특징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화는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그들의 일상생활 경험 즉, 하루를 어디서 어떤 심리상태로 보내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발달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일상생활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무작위로 어느 때(시간)을 표집하여 그 순간 일어나는 경험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함으로써 일상생활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측정방법은 경험이 진행되고 있는 일상생활맥락에서 경험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 측정하는 것이므로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에 비해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고 회상에 의한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적다. 또한 일상생활경험이 진행되는 순간의 내적상태, 즉심리상태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함으로써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은 관찰법을 통해 얻을 수 없는 정보의 수집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구대상 중학생들의 일상생활경험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상생활의 객관적 경험에 대한 결과를 보겠다. 장소맥락별로 살펴보면 연구대상 청소년들은 하루 깨어 있는 시간의 46%를 집에서, 39%를 학교에서, 9%를 여가장소에서 그리고 나머지 6%를 이동장소에서 보내고 있었으며 남녀 차이를 보이는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여가장소와 이동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높았다.

사회적 맥락별로는 하루 중 깨어 있는 시간의 37%는 혼자서 보내며 29%는 급우들과, 20%는 가족과, 12%는 한 두 명의 친구들과 그리고 나머지 2%는 친척 이웃 등 기타 사회적 맥락에서 보내고 있었다. 남녀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높았으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급우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높았다.

활동맥락별로는 하루중 깨어 있는 시간의 26%는 공부에, 43%는 여가활동에 보냈는데 여가활동 중에서도 T.V. 보는 시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여 전체 깨어 있는 시간의 11%를 T.V를 보았다. 그리고 나머지 31%는 잠자고 먹고 씻고 이동하는 등의 생활유지 활동에 보냈다. 성차를 보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여가 활동에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높았으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생활유지 활동에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높았다.

다음은 일상생활 맥락에서 경험하는 심리상태를 통해 일상생활의 주관적 경험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소맥락별 심리상태 분석 결과이다. 연구대상 청소년들은 집, 여가장소, 그리고 이동장소에서 경험하는 심리상태가 학교나 학원에서 경험하는 심리상태보다 긍정적이었다. 사회적 맥락별로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의 심리상태가 학교에서 급우들과 선생님이 함께 있는 맥락에서 느끼는 심리상태보다 더욱 긍정적이었다. 활동맥락별로는 여가활동중에 경험하는 심리상태가 공부를 하거나 생활유지 활동 중에 경험하는 심리상태

보다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중요성 인지 수준에서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는데 즉 공부를 여가활동보다 중요한 활동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의 하루가 어떠한 맥락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루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 맥락인 집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으며 각 일상생활 맥락 중에서 가장 심리상태가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맥락과 그 반대의 상태를 보여주는 맥락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특히 초기 청소년의 심리상태는 맥락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함을 보여준다. 각 맥락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율과 심리상태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초기 청소년들은 대체로 심리상태가 긍정적인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일상생활경험의 객관적, 주관적 특성에 있어서 성차를 보였으며 성차를 보이는 맥락의 종류나 성차의 방향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므로 일상생활의 각 맥락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특성에 있어서의 폭력행동 수준에 따른 차이 분석에 있어서는 성차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남,녀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3. 폭력행동 수준에 따른 객관적 일상생활 경험의 특징

폭력행동 수준에 따른 일상생활맥락에서의 객관적경험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맥락의 종류별로 그리고 남,녀 따로 요약하고자 한다. 먼저 장소맥락에 대해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폭력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은 하루 깨어 있는 시간중에서 집(내방을 제외), 여가장소, 그리고 이동중인 장소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폭력행동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컸으며, 폭력행동 수준이 낮은 집단은 내방과 학습관련 장소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폭력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컸다. 여학생의 경우는 하루 깨어 있는 시간에 대한 각 장소맥락에서 보낸 시간의 비율에 있어서 폭력

행동 수준 상·하 집단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맥락에 대한 객관적 경험은 남학생의 경우 폭력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지만 그들과 상호작용 없이 혼자 있는 맥락 혹은 친구들과 함께 있는 맥락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컸다. 폭력행동 수준이 낮은 집단은 교실에서 급우들 혹은 급우들 및 선생님과 함께 있거나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맥락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컸다.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폭력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지만 그들과 상호작용 없이 혼자 있는 맥락 혹은 친구들과 함께 있는 맥락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컸다. 폭력행동 수준이 낮은 집단의 여학생들은 높은 집단의 여학생들에 비해 교실에서 급우들 혹은 급우들 및 선생님과 함께 있는 맥락 혹은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맥락 그리고 부모와 함께 있는 맥락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컸다.

나머지 일상생활경험 맥락인 활동맥락에 대한 객관적 경험은 남학생의 경우 폭력행동 상집단은 하집단에 비해 혼자 공부하거나, 여가활동 중에서도 타인과의 대화 및 상호작용, TV보기, 그리고 생활유지활동에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더 컸다. 한편, 폭력행동 수준이 낮은 집단의 남학생은 높은 집단의 남학생보다 학교수업, PC 게임, 그리고 이동 및 다음 활동 준비를 위한 활동맥락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컸다. 여학생의 경우는 폭력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여가활동 중 타인과의 대화 및 상호작용, 소극적여가, 그리고 이동 및 다음 활동 준비에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컸다. 반면에 폭력행동 수준이 낮은 집단의 여학생들은 학교수업, 적극적여가, PC 게임, 그리고 생활유지 활동에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높은 집단의 여학생들에 비해 컸다.

이상의 결과들은 일상생활의 객관적 경험에서 폭력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폭력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비교적 자발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맥락(예, 집, 여

가장소, 친구와 함께 있는 맥락, 여가활동 맥락)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폭력행동 수준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비교적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맥락(예, 학교, 교실에서 급우들과 함께 있는 맥락, 학교수업 활동 맥락)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폭력행동에 대한 대처 프로그램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맥락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주요 정보이다.

한편, 주요 폭력행동 수준에 따른 객관적 일상생활 경험의 차이는 남·녀에 따라 달리 나타났는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폭력행동 수준에 따른 객관적 경험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이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은 외현적인 일상생활 모습이 폭력행동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청소년의 폭력행동 중재 프로그램은 남·녀에 따라 달리 구성되어야함을 제시한다.

4. 폭력행동 수준에 따른 주관적 일상생활 경험의 특징

일상생활맥락에 대한 주관적경험의 폭력행동 수준에 따른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도 객관적경험에 대한 결과 요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맥락의 종류별로 그리고 남녀 따로 요약하고자 한다. 주관적경험은 두가지로 분석되었는데 하나는 일상생활에서의 경험하는 심리적수준에 있어서의 맥락변화에 따른 다양성 유형이 폭력행동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았으며, 다른 하나는 일상생활 각 맥락에서의 심리적 수준이 폭력행동 상·하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장소맥락에 대한 주관적경험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폭력행동 상집단은 이동장소에서의 심리적 경험이 학습관련 장소에서의 심리적 경험보다 긍정적이었으며, 폭력행동 하집단은 내방에서의 심리적 경험이 학습관련 장소에서의 심리적 경험보다 긍정적이었다.

한편 각 맥락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수준에 있어서 폭력행동 수준 상

하 집단간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폭력행동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심리상태에 있어서 부정적이었다. 특히 내방에 있을 때 다양한 종류의 심리상태에서(부정적정서, 자유선택수준, 동기수준, 중요성인지 수준) 폭력행동 수준 상·하 집단간 차이를 보임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된 6개 장소맥락중에서 두 폭력행동 상·하 집단을 가장 잘 변별하는 장소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폭력행동 수준이 높은 남학생들은 낮은 남학생들에 비해 내방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 부정적정서 표현이 강하고 자유선택 수준, 동기 수준이 낮았다.

반면에, 장소맥락 중에서 공부와 관련된 장소(학교, 학원)와 이동장소에서의 심리상태의 수준은 폭력행동 수준 상·하 집단간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주관적 경험은 폭력행동 수준 상·하 집단 모두에게 비교적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을 하게되는 장소맥락이었다.

장소맥락에 대한 주관적 경험의 여학생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폭력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은 6개의 장소맥락 중에서 다른 장소에 있을 때보다 내방에 있을 때 부정적 정서 수준이 가장 낮은 반면, 폭력행동 수준이 낮은 집단은 부정적 정서 수준에 있어서 장소맥락의 변화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폭력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은 중요성인지 수준에 있어서 장소맥락의 변화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낮은 집단은 내방과 학교에서 경험하는 중요성 인지 수준이 집에서의 수준보다 높았다.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여학생도 폭력행동 수준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심리상태에 있어서 부정적이었다. 6개의 장소맥락 중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심리상태에서(부정적정서, 자유선택수준, 동기수준, 중요성인지 수준) 차이를 보임으로써 폭력행동 수준 상·하 집단이 가장 잘 변별되는 장소는 학습관련 장소였다. 학습관련 장소에서 폭력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의 여학생들은 낮은 집단에 비해 자유선택 수준과 주의집중 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여가 장소와 이동장소에서의 심리상태 수준은 폭력행동 수준 상·하 집단간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은 사회적 맥락에 대한 주관적경험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폭력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은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와 교실에서 급우들과 함께 있을 때의 정서적 상태가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의 정서상태보다 부정적이었다. 또한 혼자 있는 맥락이라도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느냐 아니면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으나 그들과의 상호작용 없이 혼자 있느냐에 따라 정서상태를 제외한 심리적 경험이 달랐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의 심리적 수준이 더욱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폭력행동 수준이 낮은 집단은 심리적 상태에 있어서 사회적 맥락 변화에 따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각 사회적 맥락별 심리 수준에 있어서 폭력 수준 상·하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사회적 맥락에서 폭력 수준 상집단의 남학생들이 하집단의 남학생들에 비해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았다. 특히 9개의 사회적 맥락 중에서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으나 그들과의 상호작용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맥락에서는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비롯하여 자유선택 수준, 주의집중 수준, 동기 수준에서 폭력 상집단이 하집단 보다 부정적인 상태를 보임으로써 폭력행동 수준에 따라 그 주관적 경험이 다른 주요 사회적 맥락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맥락에 대한 여학생의 주관적 경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맥락 변화에 따른 심리적 상태의 다양성 유형이 폭력행동 수준 상·하 집단 모두 같았다. 즉, 폭력행동 수준이 높은 여학생 집단이나 낮은 여학생 집단 모두 부모와 함께 있거나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의 심리 상태가 급우들과 함께 있을 때의 심리 상태보다 긍정적이었다.

각 사회적 맥락별 심리상태에 있어서의 폭력 상·하 집단간 차이를 보면 폭력 행동 수준 상집단의 여학생들이 거의 모든 사회적 맥락에서 폭력 수준 하집단의 여학생들 보다 부정적 정서가 강했다. 특히 교실에서 급우들과 함께 있는 맥락에서는 폭력행동 상집단의 여학생들이 부정적 정서 뿐 아니라 자유선택 수준, 주의집중 수준, 동기 수준, 중요성 인지

수준에서 하집단의 여학생들 보다 부정적이었다.

끝으로 활동 맥락에 대한 주관적 경험의 분석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남학생의 경우 폭력행동 상집단은 중요성인지 수준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았으나 폭력행동 하집단은 공부와 생활유지 활동이 TV를 보거나 다른 소극적 여가 활동보다 중요하다고 인지하였다. 각 활동 맥락별 심리상태에 있어서의 폭력 상·하 집단간 차이를 보면 폭력행동 수준 상집단의 남학생들이 거의 모든 활동 맥락에서 하집단의 남학생들 보다 부정적 정서가 강했다.

여학생의 경우는 중요성인지 수준과 주의집중 수준의 활동맥락적 다양성에 있어서 폭력행동 상·하 집단간 차이를 보였는데 폭력 상집단 여학생은 행동에 대한 중요성 인지 수준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았으나 폭력 하집단 여학생들은 공부가 여가활동보다 중요하다고 인지 하였다. 반년에 폭력 상집단의 여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보다 여가 활동을 할 때 주의집중이 잘 된다고 하였으며 하집단의 여학생들은 주의집중 수준이 어느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각 활동 맥락별 심리상태에 있어서의 폭력 상·하 집단간 차이를 보면 폭력 상집단 여학생들이 거의 모든 활동맥락에서 하집단 보다 부정적 정서가 강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일상생활 맥락에 대한 심리적 경험에 있어서 폭력행동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폭력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거의 모든 맥락에서 부정적 정서 표현이 강했으나 자유선택수준, 주위집중 수준, 동기 수준, 중요성인지 수준은 맥락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폭력 상하 집단간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대체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맥락의 변화에 따른 심리적 상태의 다양성 유형이 폭력행동 수준에 따라 더욱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들의 폭력행동과 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어떤 일상생활 맥락에서 측정된 어떤 심리요인이나에 따라 다르며 이러한 점은 특히 남학생에게 있어서 더욱 민감하게 반영됨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 곽금주(1992). 공격영화 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곽금주·윤진·문은영(1993). 한국 청소년 비행 연구의 동향과 심리학적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2-27.
- 구창모(1993). 폭력.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문제론. 255-269.
- 김은경(1997). 학교폭력과 폭력의 사회화. 교육개발.
- 김재엽·이서원(1999). 청소년의 부모폭력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3), 1-14.
- 김재엽·최선희(1998). 청소년 스트레스가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집, 29, 181-204.
- 김종미(1997).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성격과 유발요인.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 17-33.
- 김준호(1997). 한국의 폭력에 대한 연구: 피해와 가해를 중심으로. 청소년폭력 국제학술대회, 한국청소년 개발원, 9-29.
- 김준호·이성식(1996). 계층에 따른 학업 성적과 비행과의 관계: 긴장이론과 사회통제 이론의 논쟁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8, 97-120.
- 김재엽·이서원(1999). 청소년의 부모폭력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3), 1-14.
- 김재엽·최선희(1998). 청소년 스트레스가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집, 29, 181-204.
- 김정옥·구향숙(1996). 커뮤니케이션 상황과 청소년의 공격성간의 관계 분석(Ⅰ). 대한가정학회지, 34(3), 89-105.
- 노성호(1994). 청소년 학교생활과 비행. 수사연구, 4, 25-29.
- 문용린(1992). 학생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와 대처방안. 체육청소년부. 우

- 리 청소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대처방안 연구발표.
- 박혜원·곽금주(1989). 아동의 T.V. 시청에 관한 연구의 동향과 과제 - 심리학적 연구를 위한 한국문헌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 125-142.
- 박윤창·이미경·윤진(1995). 자극추구동기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53-64.
- 박현선·김유경(1997). 가족관계와 청소년 비행-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2(8), 113-135.
- 범무연수원(1995). 범죄백서. 서울: 대검찰청.
- 심용철(1989).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비행의 측정. 한양대 대학생활 연구, 7, 189-209.
- 심용철(1999). 청소년의 충동성 및 공격성과 폭력행동의 상관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2), 24-34.
- 양돈규·임영식(1998). 청소년 비행의 최근 동향과 원인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11, 109-132.
- 오경자·이혜련(1990). 한국 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 증후군 연구: 4-5세, 6-11세, 12-16세 남아 CBCL 자료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33-55.
- 윤진(1996). 2020년, 청소년의 병리: 폭력. 2020년 우리청소년의 모습은?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55-185.
- 윤진·곽금주(1991).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사회인지이론에 의한 실험적 접근. 형사정책연구, 2(2), 53-94.
- 윤진·장근영·박윤창·김도환(1997). 비행 개입 수준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청소년들의 '가능자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1), 153-166.
- 이동원(1997).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친구가 비행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Cloward와 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Differential Opportu-

- nity Structure Theory)을 기반으로. 형사정책연구, 8(3), 233-272.
- 이미경(1995). 충동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미리(1995). 고3 청소년의 일상생활 활동 경험과 우울증 수준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16(2), 23-36.
- 이미리(1996). 청소년의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와 일상생활활동 경험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17(1), 137-152.
- 전귀연(1998). 가족구조환경, 물질주의 및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87-103.
- 정선주·조수철(1997). 가정에 국한된 품행장애 1례. 소아·청소년정신의학, 8(2), 287-297.
- 정유미·김득성(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부산시내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3), 31-46.
- 최태산·홍경자(1997).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심리적 변인 분석. 교육심리연구, 11(2), 291-322.
- 한경혜·김영희(1999).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실태와 관련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7(2), 27-39.
- 홍연애·김향은(1993). 아동의 공격성에 관한 최근의 연구동향. 충남전문대학논집, 11, 253-268.
- deVries, M. W.(1992). *The experience of psychopat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Vries, M. W. & Delespaul, P.A. E. G.(1992). Variability of schizophrenia symptoms. In M. W. deVries, (Ed.), *The experience of psychopat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dge, K. A.(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2, 162-170.

- Dodge, K. A.(1990). Emotion an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J. Garber, K. A. Dodge(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NY: Cambridge.
- Huesmann, L. R.(1986). Psychological processes promoting the relation between exposure to media violence and aggressive behavior by the viewer. *Journal of Social Issues*, 42, 125-140.
- Huesmann, L. R.(1988). An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14, 13-24.
- Huesmann, L. R., Eron, L. D., Lefkowitz, M. M., & Walder, L. O.(1984). Stability of aggression over time and generations. *Development Psychology*, 20(6), 1120-1134.
- Huesmann, L. R., Lagerspetz, K., & Eron, L. D.(1984). Intervening variables in the TV violence-aggression relation: Evidence from two countries. *Development Psychology*, 20.
- Larson, R. & Asmussen, L.(1992). Bulimia in daily life: a context-bound syndrome. In M. W. deVries, (Ed.), *The experience of psychopat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rson, R., Csikszentmihalyi, M, & Freeman, M.(1992). Alcohol and marijuana use in adolescents' daily lives. In M. W. deVries, (Ed.), *The experience of psychopat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rrick, W. A.(1992). Dysphoric moods in depressed and non-depressed adolescents. In M. W. deVries, (Ed.), *The experience of psychopat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arr, S.(1992). Developmental theories for the 1990s: Development and

individual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63, 1-19.

Zuckerman, M.(1979). Sensation seeking. In H. London & J. Exner (Eds.), *Dimensions of personality*. NY: Wiley.

Abstract

Lee, Mee-R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daily life experiences were associated with violent behaviors among early adolescents. Daily life experiences can be indicated by the percentage of time spent and psychological states in each category of the daily contexts. Daily contexts are categorized based on location, people whom stay with, and activity. Twenty hundred and seventy four students in three middle schools located in Seoul participated in this study. Among the 274 students, 45 students were selected and the ESM method was administrated. The 45 students reported their daily life experiences 7 times a day for a week, totaling 49 times. This study found that minimal object violent behaviors and verbal violent behaviors were a dominant type of the participants' violent behaviors.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the levels and patterns of the violent behaviors. The high violent behavior group tended to spend more time in contexts which they could freely choose than the low violent behavior group did. The high violent behavior group reported more negative emotional states than their counterparts did across daily contexts. The contextual variations also appeared in the relationship pattern between the daily life experiences and levels of violent behaviors. Gender differences appeared in these relationship pattern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daily life experiences can contribute to explaining the early adolescents' violent behaviors in micro systematic view.

부 록 1

학생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이 질문지는 청소년들의 가족과 학교 생활은 어떠한지, 그리고 화가 날 때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묻습니다. 여러분이 답한 내용은 절대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이 답한 내용을 가지고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대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잘 답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객원연구원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아동학박사(청소년발달전공) 이 미리

질문지 작성자:

() 중학교, 2학년 ()반, ()번
성별: 남, 여
생년월일: 19()년 ()월 ()일
작성날짜: 1999년 ()월 ()일

1. 대개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몇시에 자고 몇시에 일어납니까?

잠드는 시간 _____

일어나는 시간 _____

2. 토요일 밤에는 몇시에 자고 일요일 아침 몇시에 일어납니까?

잠드는 시간 _____

일어나는 시간 _____

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식구에 O표 하세요.

a)어머니

b)아버지

c)할머니

d)할아버지

e)남자형제: 1명 이상이면 몇 명입니까? ____명

f)여자형제: 1명 이상이면 몇 명입니까? ____명

g)친척: 누구입니까? _____

h)친척이 아닌 다른사람: 누구입니까?_____

4. 부모님은 모두 살아 계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O표 하세요.

a)두분 다 살아 계심 b)아버지만 살아 계심

c)어머니만 살아 계심 d)두분 다 돌아가셨음

5. 부모님께서서는 함께 사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O표 하세요.

a)두분 함께 사신다. b)이혼하셨다.

c)별거하신다.

d)앞의 세 경우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6. 부모님께서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가능한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a)아버지: _____

b)어머니: _____

7. 아버지와 어머니 직업을 <보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상세히 적고, 직업이 없으시면 없음으로 적으세요.

<보기>

- 학교 선생님, 교감선생님 a)아버지 _____
 ○○회사대리, 부장 _____
 ○○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장, 사원 b)어머니 _____
 부모님이 함께 문구점 운영하심 _____

8. 부모님의 연세는?

a)아버지 ()세 b)어머니 ()세

9. 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O표 하세요.

a)기독교 b)불교 c)카톨릭 d)유교
 e)천도교 f)기타 종교 g)종교가 없음

10. 닌텐도나 컴퓨터등 전자 게임을 합니까?

a)거의 안한다. b)한달에 2-3번 정도 c)일주일에 한번정도
 d)일주일에 2-3번 정도 e)거의 매일한다

11. 전자 게임을 거의 매일 한다면 하루 평균 몇시간 정도 합니까?

_____ 시간

12. 요즘 자주하는 전자(컴퓨터나 닌텐도)게임 이름은 무엇입니까?

13.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사용합니까?

a)거의 안한다. b)한달에 2-3번 정도
 c)일주일에 한번정도 d)일주일에 2-3번 정도
 e)거의 매일한다. (하루 몇시간 합니까? 시간)

14. 주위에서(학교나 집 등)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남을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O표 하세요.

- a) 전혀 없음
- b) 한 학기에 한 두 번 봄
- c) 한 달에 한 두 번 봄
- d) 일주일에 한 두 번 봄
- e) 거의 매일 봄

15. 는 것이 단조롭고 지루해서 뭔가 스티릿있고 모험적인 경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나의 생각에 가장 잘 맞는 번호에 O 표 하세요.

1	2	3	4	5
전혀아니다	중간정도다			매우그렇다

16. 나와 함께 다니는 친구들은 어떤 타입이라고 생각됩니까? 가장 알맞은 번호에 O표 하세요.

- a) 싸우거나 과격한 말이나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 b) 싸우거나 과격한 말이나 행동을 가끔 하는 편이다.
- c) 잘 싸우고 과격한 말이나 행동을 자주 하는 편이나 학교에서 근신 등의 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 d) 잘 싸우고 과격한 말과 행동을 하며 이러한 행동 때문에 학교에서 근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17. TV시청을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합니까?

- a) 월요일-금요일까지: 하루 평균 _____ 시간
- b) 토요일, 일요일: 하루 평균 _____ 시간

18.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이며 무슨 노래를 좋아합니까?

- a) 가수이름 _____
- b) 노래명 _____

19. 술을 어느정도 마시거나 취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0. 주로 누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까? _____

21. 다음은 여러분 또래의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종류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나는 a)에서 i)까지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알맞은 번호에 O표 하세요.

	매우 많이 받는다		보통이다		전혀 받지 않는다
a) 학교성적과 관련된 스트레스	5	4	3	2	1
b) 집안사정과 관련된 스트레스	5	4	3	2	1
c)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5	4	3	2	1
d) 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5	4	3	2	1
e) 친구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	5	4	3	2	1

f)이성친구와 관련된 스트레스	5	4	3	2	1
g)선생님과 관련된 스트레스	5	4	3	2	1
h)건강과 관련된 스트레스	5	4	3	2	1
i)외모와 관련된 스트레스	5	4	3	2	1

22. 다음은 여러분 또래의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행동들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지난 한학기 동안의 나의 행동을 잘 생각해보고 나의 행동에 가장 잘 맞는 수준을 골라 O표 하세요. 앞서서도 말했듯이 여러분의 대답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니 솔직하게 모든 문제에 빠짐없이 답해주세요.

내 용	없다.	1-2번 있다.	3-4번 있다.	5-6번 있다.	많다.
1. 물건을 던지거나 걷어 찬 적이 있다.					
2. 발을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은 적이 있다.					
3. 건물이나 공공 시설물에 돌이나 오물을 던진적이 있다.					
4. 공공 시설(공원, 지하철, 대중전화, 보도블럭 등)의 기물을 적게나마 고의로 망가뜨려 본적이 있다.					
5. 공공 시설물에 펜이나 칼로 흠집을 낸 적이 있다.					
6. 장난으로라도 불을 질러 본 적이 있다.					
7. 고의로 유리창을 깨뜨린 적이 있다.					
8. 남의 차를 긁거나 타이어에 흠집을 낸 적이 있다.					
9.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들어가 어떤 식으로든지 흔적을 남긴 적이 있다.					
10. 오토바이 폭주를 한 적이 있다.					
11. 다른 공격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적어주세요.					

내 용	없다.	1-2번 있다.	3-4번 있다.	5-6번 있다.	많다.
1. 남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2. 남에게 모욕적인 말(욕설)을 한 적이 있다.					
3. 남을 무시하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4. 내게 잘못된 사람에게 화가 나서 뒤에서 욕하거나 협담을 한 적이 있다.					
5.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다른 어른들에게 큰 소리로 대들거나 반항한 적이 있다.					
6. 남에게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겠다고 말로 위협한 적 이 있다.					
7. 길가는 모르는 사람을 놀리거나 말로 위협한 적이 있다.					
8. 장난전화로 걸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다.					
9. 다른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적어주세요.					

내 용	없다.	1-2번 있다.	3-4번 있다.	5-6번 있다.	많다.
1. 남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2. 남을 밀치거나 움켜잡고 흔든 적이 있다.					
3. 남을 단단한 물건으로 때린 적이 있다.					
4. 남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다.					
5. 남을 녹초가 될 때까지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6. 칼이나 흉기를 갖고 다니며 남을 위협해 본적이 있 다.					
7. 남에게 단단한 물건을 던진 적이 있다.					
8. 남과 치고 박고 싸운 적이 있다.					
9. 패싸움을 한 적이 있다.					
10. 남의 싸움에 끼어 들어 몸싸움을 한 적이 있다.					
11. 먼저 몸싸움을 시작하거나 옆 사람을 집적거린 적 이 있다.					
12. 장난 삼아서라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 아 본적이 있다.					
13. 다른 공격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적어주세요.					

23. 우리집의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a)상류층 b)중상류층 c)중류층
d)중하류층 e)하류층

24. 여러분 또래의 청소년들이 남을 때리거나 심한 말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른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이든 솔직하게 적어 주세요.

25. 학교 성적은 반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O표 하세요.

- a) 1등 - 10등 b) 11등 - 20등 c) 21등 - 30등
d) 31등 - 40등 e) 41등 이하

26.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이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잘 읽고 내 생각과 같은 칸에 O표 하세요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것 같다.	정말 아니다.
1.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2. 나는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				
3.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이 든다.				
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 처리를 잘 한다.				
5. 나는 자랑할 만한 점이 별로 없다.				
6.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7. 대체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8. 나는 내 자신을 좀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9. 나는 때때로 내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진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아무런 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 록 2

2학년 ()반 ()번

성별: 남, 여

이 순간 나는?

시계가 울리는 순간에

나는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여기 이 종이에 솔직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적어보세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시계가 울린 후 바로 기록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2학년 ()반 ()번

1999년 __월 __일 __요일

시계가 울린 시간 __시 __분(오전, 오후)

page_____

기록한 시간 __시 __분(오전, 오후)

시계가 울리는 순간에

1.지금 어디에 있습니까?(상세하게) _____

2.무엇을 하고 있습니까?(상세하게)_____

3.혹시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고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4.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상세하게)

내용	절대로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5. 지금 하는 행동은 내가 선택한 것입니까?					
6. 지금 하는 행동에 주의집중이 잘 됩니까?					
7. 지금 하는 행동은 하고 싶은 일입니까?					
8. 지금 하는 행동은 중요합니까?					

9. 지금 나의 기분이나 느낌은 어떻습니까?

내 용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것 같다	정말 아니다
1. 흥미를 느끼는				
2.기쁜				
3.깜짝 놀란				
4.슬픈				
5.우울한(좌절감이 드는)				
6.화가 나는				

내 용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것 같다	정말 아니다
7.아무 느낌이 없는				
8.혐오스러운				
9.무서운(불안한)				
10.수줍은				
11.수치스러운				
12.죄책감이 드는				
13.사랑하는(받는)				
14.편안한				

10. 나는 지금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부시는 행동, 남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하거나, 따돌리거나, 때리는 행동 혹은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 (해당되는 칸에 O표)

정말그렇다	조금 그런편이다	아니다

11.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혹시 전화를 하고 있으면 누구와 통화를 했습니까?) 해당되는 모든 칸에 O표 하세요.

내용	O표 칸	내용	O표 칸
1. 혼자(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음)		8. 남자 친구 한명	
2. 혼자(주위에 아무도 없음)		9. 여자 친구 한명	
3. 어머니		10. 남자 친구들	
4. 아버지		11. 여자 친구들	
5. 여자 형제		12. 데이트 중(미팅 중)	
6. 남자 형제		13. 다른 사람들 (누구입니까? _____)	
7. 선생님			

12. 해당되는 번호에 O표 하세요.

지금 나는

- 1. 혼자 있고 싶다.
- 2. 친구와 함께 있고 싶다.
- 3.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
- 4. 이외의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누구입니까?)

13. 다음은 내가 남에게, 남이 나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해당 칸에 O표 하세요.

내가 남에게	그렇다	아니다
1. 나는 지금 남을 때리거나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다.		
2. 나는 지금 남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다.		
3. 나는 지금 남을 따돌리거나 무시하고 있다.		
4. 나는 지금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부신다.		

남이 나에게	그렇다	아니다
1. 남이 나를 때리거나 그와 유사한 행동을 했다.		
2. 남이 나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그와 유사한 행동을 했다.		
3. 남이 나를 따돌리거나 무시했다.		
4. 함께 있는 사람이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부신다.		

14. 나는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있다(해당되는 칸에 O표).

정말그렇다	조금 그런편이다	아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호가 왔을 때도 솔직하게 꼼꼼하게 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99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정 책 연 구 ◇

- 99-R 08 「유해업소고용 여자청소년을 위한 사법·복지·교육대책」 심영희·윤옥경·이계순·전경숙·정혜영
- 99-R 09 「2000년대를 향한 경기지역 청소년육성 기본계획 연구」 함병수·이종원·황진구·김영한
- 99-R 11 「학교 특별활동과 지역사회 수련활동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이광호·이태재·윤철경
- 99-R 12 「청소년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연구」 이종원·정희옥·서정아
- 99-R 13 「청소년 대중문화 수용실태와 대책」 이민희·맹영임·정문성
- 99-R 17 「청소년관련 산업 및 복지투자에 관한 연구」 최충옥·임성택·서정아
- 99-R 18 「청소년 지도사 전문화 방안 연구」 이광호·정희옥·김진호
- 99-R 26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연구 개발」 김홍규·김영한·김진호
- 99-R 27 「청소년 정책·사업 종합평가방안 연구」 이종원·김영한·서정아
- 99-R 32 「특기·적성교육활동 개선방안 연구」 이광호·김안나·전명기·홍생표
- 99-R 33 「학교붕괴 실태 및 대책 연구」 윤철경·박창남·이인규
- 99-R 34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문제와 대책」 황창순·이혜연·김희진
- 99-R 35 「청소년문제행동과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박병식·전경숙·윤옥경·정혜영
- 99-R 38 「고졸 청소년실업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강대근·박창남·윤옥경
- 99-R 43 「장애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정책 개발」 박영균·김정렬·이혜연
- 99-R 45 「집단 따돌림 예방 및 지도대책 연구」 이춘화·이민희·임성택
- 99-R 46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의 활동동향 연구」 이용교·김영지·임지연
- 99-R 48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운동 연구」 김정주·길은배·정화수
- 99-R 56 「21세기 청소년자원봉사 정책과 추진방향」 김정배·교원영·정익재

◇ 프로그램 개발 ◇

- 99-R 07 「청소년정책,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민희·김경준·주연미 (제5회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신청작 모음집)
- 99-R 10 「신바람나는 민속놀이활동」 이혜연
- 99-R 14 「청소년 정보의식 함양프로그램 개발 방안연구」 황진구·임성택·김성희
- 99-R 19 「인터넷 정보활용」 (99 청소년수련거리 I) 김혁진·정익재·김진호
- 99-R 20 「인명구조」 (99 청소년수련거리 II) 김혁진·정익재·김진호